

## ‘전자’도 위험... 구조조정 대기업 윤곽

‘삼성전자 착시효과’ 빼고 살펴보면 업종 경쟁력 취약  
글로벌 기업에 부품 납품 1·2차 업체 등 리스트 포함  
금감원, 신용위험평가 마무리... “C·D등급 30여 곳”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위험평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가운데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그간 취약·한계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던 전자업 대기업 몇 곳이 이번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2016년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와 관련한 구조조정(C~D등급) 기업 리스트를 확정하고, 다음 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채권은행들은 앞서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을 상대로 4월 초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해왔다.

올해부터는 업체들의 이의신청 절차가 추가돼 현재 일부 업체의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들 기업과의 막판 조율이 완료되면 C~D등급을 받을 구조조정 대상 업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C~D 등급을 받을 대기업은 총 30곳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총 54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하반기에 수시 평가를 추가로 진행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업체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전자업종 중 글로벌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대형 1·2차 업체 등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업은 전통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업종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최근 들어 건설과 철강, 조선·해운 등 취약·한계업종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전자업 기업은 총 8개사로, 건설(14개)과 철강(11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시장 상황과 직결되는 만큼 취약 업종 관련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한국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비취약업종에 대해 정부가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세부 평가 시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 전망 등 업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반영됐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청문회



배출가스 발생량을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 79개 모델에 대해 환경부가 인증 취소와 판매금지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25일 인천 경서동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소명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폭스바겐 측은 청문회에서 경미한 조작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29일을 전후해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등 행정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4면 신태현 기자 holjiak@

## 진웅섭-강대석 ‘鳥飛梨落’?

〈오비이락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평일 점심시간 ‘사적 만남’ 구설  
신금투 ELS 손실 축소 의혹 속  
감독기관 수장과 회동 오해소지



진웅섭 원장 강대석 사장

평일 점심시간 금융감독당국 수장과 증권사 사장 간의 만남은 사적 자리일까?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들의 만남은 사적 자리가 아닌 직무 관련성이 명백한 자리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13일 서울 모처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이 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금융사의 관련 기관 수장 모시기가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

김영란법을 제쳐 뒤도 신금투는 현안이 많다. 업계에서는 신금투가 추가연계증권(ELS) 손실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 초 신한금융그룹의 새 회장 선출이 있는 것도 민감한 부분이다. 올해 초 3연임한 강 사장은 신한금융의 새 체제에서 요직을 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에서 진 원장과 강 사장의 개별 만남은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

그 자리에 함께한 금감원 국장은 “진 원장이 업계 관계자와의 소통 자리를 한 것이다. 신금투에서도 (강 사장 외에) 한 명이 배석했으니 신금투 담당인제가 배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장은 “순수하게 사적 자리로, 업무에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금융사의 관련 기관 수장 모시기가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

신금투 관계자는 “강 사장이 무슨 이유로 진 원장을 만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이 사적 자리라는 견해와 결이 다른 반응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형 증권사 사장은 “요청만 하면 금융감독당국 수장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딜라이브에 경영관리단 파견

대주단, 국민연금 요구 수용

국민연금공단이 인수금융 부도 위기를 넘긴 케이블TV업체 딜라이브(옛 씨엔엠)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할 것을 이 회사 대주단에 요청했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열린 딜라이브 대주단 회의에서 이 회사의 재무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한화생명보험, 세마을금융 등으로 이뤄진 딜라이브 대주단도 국민연금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경영관리단은 전문성을 고려해 은행 인력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딜라이브의 재무 재조정이 완료되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파견될 예정이다. 딜라이브에 경영관리단이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한 딜라이브 매각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 매각이 장기화 되면서 KCI와 딜라이브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의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펀드 등은 2007년 특수목적법인(SPC) 국민우선방송투자(KCI)를 통해 딜라이브를 인수했다.

딜라이브의 대주단은 29일 인수금융 만기를 3년 연장하면서 KCI의 지분 19.99%도 확보한다. KCI 및 딜라이브의 인수금융 규모인 2조1918억 원 중 8000억 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출자전환된다. 대주단 간 출자전환 비중은 기존 인수금융 비율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이 1700억 원, 하나금융그룹 1600억 원, 국민연금 1300억 원, 한화생명보험 1020억 원, 국민은행이 440억 원 등을 각각 출자 전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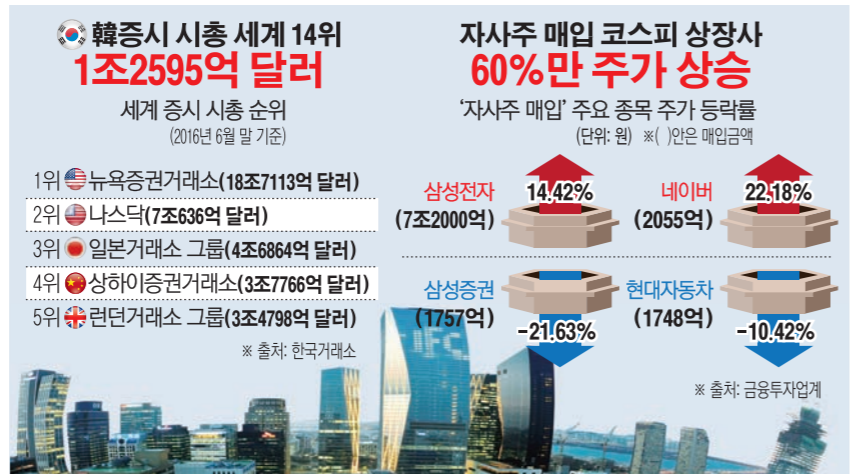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데이터 뉴스 Data News

#### 시총순위 상반기 들어 1계단 상승

한국증시의 시가총액이 세계 14위로 올해 상반기 중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보다 2.3% 증가한 총 1조2595억 달러(약 1433조 원)로 집계됐다. 세계 10위권 내 주요국 증시 시가총액이 대부분 후퇴한 반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자사주 매입 ‘백산’ 주가 75% 경증

자사주를 사들인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6곳만 주가 상승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코스피 기업은 총 3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2일 증가가 자사주 취득 신고일 대비 상승한 기업은 약 60%에 해당하는 19곳이었다.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합성피혁 제조업체 백산(74.93%)이다.

유혜은 기자 euna@

##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포맷

# 사드 보복 현실화?... 화장품·식품도 촉각

中, 한국산 전기강판에 5년간 37% 반덤핑 관세

포스코 제품 37.3%... 日·EU산도 최대 46.3%까지  
中 “해당 생산제품 덤핑판매... 동종업계 실적에 피해”  
소비재 통관거부·포장 불합격 등 수입제한 조치 우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가 중국 정부의 경제 제재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중국이 한국산 전기강판에 대해 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 정부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 37.3~46.3%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상 품목은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GOES)이며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기기인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재료로 사용된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인다. 일반 강판보다 가격이 3~4배 비싸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의 경우 포스코가 생산하는 GOES 제품에 대해 37.3%의 관세를 부과하며 다른 한국 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는 JFE스틸 제품에 39%의 관세가 부과되며 신일철주금(신닛테쓰스미킨) 제품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는 45.7%가 부과된다. EU 제품의 경

우는 일괄적으로 46.3%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4월 1일부터 이들 3개국 및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돼 자국 동종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불복할 경우 중국의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행정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이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중국 장하이자동차(JAC)가 이달 초 삼성SDI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생산을 중단하자, 정부는 “사드 때문이 아니다. 8~9월 중국 정부의 배터리 관련 세부 규범이 통과된 뒤 탑재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로 인한 양국 관계 혼란의 불씨를 차단하는 데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번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보복 조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통관 기준이나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도 한국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화장품 등 소비재의 경우 통관 거부나 포장 불합격 등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아세안안보포럼서 신경전 벌인 한·중 외교장관



윤병세(왼쪽) 외교장관이 25일 오전(한국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비엔티안/연합뉴스

## 왕이 “사드배치, 신뢰에 해 끼쳐” 윤병세 “北 핵에 대해서만 운용”

中 “사전에 의사소통 미리 했어야”  
韓 “국민 지키기 위해 당연한 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 가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노골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ASEAN) 관련 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밤 라오스 비엔티안의 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1시간가량 회담했다.

왕 부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쌍방(양국)의 호상(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우리가 동료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우리 사이의 식지 않은 관계를 위해 어떤 실질적 행동을 할지 들어보려 한다”고도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할 것을 우리 측에 사실상 요구한 것은 물론 사드 배치 프로세스가 한·중 양자 관계에까지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장관은 ‘장작불을 빼면 물을 식힐 수 있고, 물을 뿜아 없애려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뜻의 중국 고사성어인 ‘추신지불(抽薪止沸) 전초제근(鉗草除根)’을 인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왕 부장은 25일 북·중이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리용호 외무상은 24일 왕 부장과 한 비행기에서 내리는 이래적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사드 문제로 생긴 한·중 간 틈새 벌리기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대부분 車 강제에 사용... “수출 비상, 또다른 시련 올 것”

국내 철강업계 반응

일반 강판 가격 3~4배 고부가 소재 관세 부과 다른 종목 번질까 우려  
美 보호무역주의도 겹쳐 노심초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중국으로 옮겨 불자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 철강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 중국에 수출하는 ‘방향성 전기강판(GOES)’에 대해 향후 5년간 37.3%에서 46.3%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현대제철이 수출한 한국산 냉연강판에 38~65%의 반덤핑·상계(相計) 관세율을 매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미 무역위원회(ITC)는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내(耐)부식성 철강 제품에 많게는 48%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기기인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재료로 사용되는 강판이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인다. 일반 강판보다 가격이 3~4배 비싸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또 용융아연도금강판,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 컬러강판 등으로 대부분 자

동차용 강판에 해당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한국산 차강판의 미국과 중국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철강기업을 비롯해 현지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올 3분기를 기점으로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도금강판은 국내시장에서 이미 포화상태인데 수출물량까지 쏟아져 들어오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에 대해서도 그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7~8월 계절적 비수기를 맞은 국내 철강시장에서는 수요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수 침체, 공급 과잉, 중국산 철강재 유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관세 인상이나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활용을 통해 수입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며 “미국과 중국은 일방적 무역 구제 조치를 포함한 사용 가능한 모든 통상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반덤핑 관세가 일부 품목에만 부과됐지만, 앞으로 다른 철강종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통상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업체들은 또 다른 시련의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철우 기자 acw@

## 이름 없는 아이 ‘무명이’를

등록번호: [ ]

성명: 무명

출생체중	입원체중	3420g
출생일	입원일	2016년 [ ] [ ]
기간	보육기 교환	

# 다시, 봅니다

봅니다  
차가운 공중 화장실에 버려진 이름 없는 아이를

다시 봅니다  
예쁜 이름이 생기고  
안전하게 보호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을

학대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따뜻한 울타리에서 보호되도록 다시 돌아봐 주세요

정기후원문의 | 1644-7911  
후원금은 전국 18개 굿네이버스 그룹홈과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자원 캠페인

다시, 봅니다

굿네이버스 시설지원

검색

# 다시, 봅니다

봅니다  
차가운 공중 화장실에 버려진 이름 없는 아이를

다시 봅니다  
예쁜 이름이 생기고  
안전하게 보호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을

학대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따뜻한 울타리에서 보호되도록 다시 돌아봐 주세요

정기후원문의 | 1644-7911  
후원금은 전국 18개 굿네이버스 그룹홈과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 지역기업+혁신 아이디어+대기업 지원='트리플 1000'!

(1063개 창업·1340억원 매출·1120명 신규일자리)

## 3년차 맞은 창조경제센터

올해로 출범 3년째를 맞는 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창업 생태계 조성의 첨병 역할을 하는 혁신센터는 지금까지 창업기업 1000여 개 육성, 투자 유치 2600억원의 성과를 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판교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현황을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센터 성과를 보고했다.

최 장관은 "지난 3년간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해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활성화와 크라우드펀딩 제도화 등 창업지원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혁신센터는 지난 2014년 9월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지역기업 성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기업이 손잡고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한 창업 생태계 요람이다. 특히 삼성을 포함해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KT, CJ, 효성, 두산, 현대중공업, 포스코,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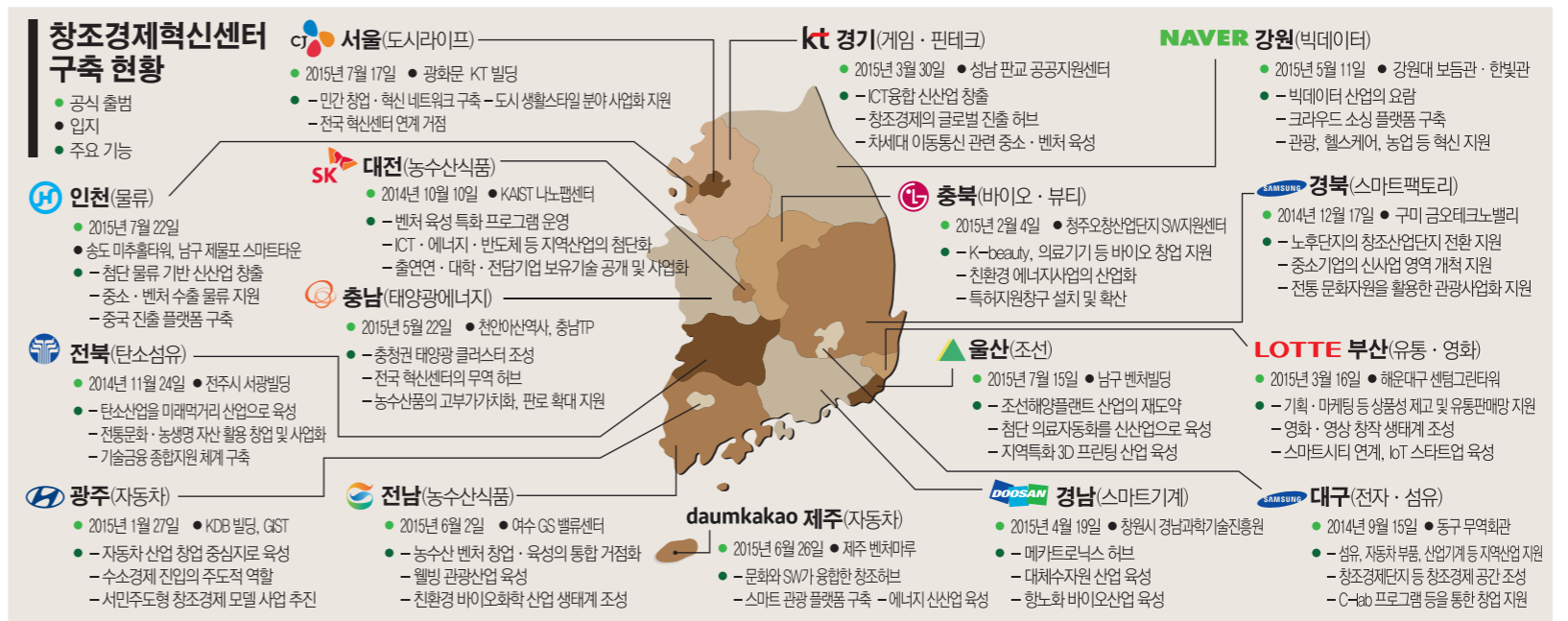
## 전국 17개 혁신센터 '창업생태계 요람'

기술·자금력 열위인 中企 조력자로  
기술지원 884건·자금지원 3473억원

삼성 패전 '대구'·LG 바이오 '충북' 등  
주요 기업들 지역특화산업 적극 지원  
신산업 육성, 또하나의 핵심축으로

이바, 카카오 등 국내 굴지의 주요 그룹들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조력자로 참여, 출범 3년 만에 한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혁신센터는 올 6월 말 현재 1063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259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며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부상했다. 매출 성과는 1340억 원으로 증가했고 신규 일자리는 1120명을 창출했다. 기술력과 자금력에서 열위인 중소기업의 지원과 역할도 자임했다. 혁신센터는 기술지원 884건, 투·융자 등 자금지원 3473억 원(604건), 판로지원 331건 등의 지원에 나섰다. 또 지난해 경북·광주·충북 혁신센터에서 199개 중소기업에 도입한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 사업을 올해는 전국 혁신센터로 확대 추진, 총 52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력자인 주요 기업의 감정을 살려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 중이다. 삼성이 지원하는 대구 혁신센터(C-패션)를 포함해 효성의 전북 혁신센터(탄소소재·농생명), 현대차의 광주 혁신센터(수소차), LG의 충북 혁신센터(뷰티·바이오), 롯데의 부산 혁신센터(유통·영화), 한화의 충남 혁신센터(농수산 명품화)를 중심으로 성과가 창출됐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도 혁신센터의 기능은 중요했다. KT가 맡은 경기 혁신센터(KIC 연계 해외 진출 프로그램), SK의 대전 혁신센터(글로벌 벤처스타 프로젝트) 등 각 혁신센터별로 다양한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도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개 기업이 2545만 달러의 해외 수출 성과를 낸 것도 혁신센터의 성과 중 하나다.

혁신센터를 통한 고용지원도 눈에 띈다. 올 4월까지 전국 혁신센터에 고용준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별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혁신센터 고용준을 찾는 청년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준은 연말까지 추가로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 한 해 좋은 일자리 취업 연계 청년 2500명, 맞춤형 교육·훈련 1만 명 이상을 목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성공사례 기업 어떤 게 있나

## '테그웨이' 체온 충전 배터리 '세상 바꿀 10대 기술' '맥스트' 증강현실 자동차매뉴얼 LA모터쇼 론칭

탄소 소재 '드론'·전통 한지 장판 접목  
ICT부터 제조업까지 창조혁신 DNA로  
해외서 인정... '글로벌 스타트업' 한걸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현실성이 결합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우수 사례로 꼽힌 스타트업들의 특징이다. 기업간거래(B2B) 분야에서부터 사물인터넷(IoT)·소비재 제품까지 사업 범위도 다양했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융합, 전통과 첨단과의 결합 등 창조경제를 이끌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들이 대거 탄생하면서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도왔다. 투자 유치는 물론, 해외에서도 제품과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스타트업들의 글로벌화에도 한걸음 다가갔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 글로벌 바라보는 스타트업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테그웨이'는 웨어러블 체온 전력생산 기술을 통해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개최한 '세상을 바꿀 세계 10대 IT기술'에서 그랑프리(1등)를 수상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먼저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 회사의 기술은 체온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에서도 50여 개 업체들과 제품 관련 협의를 진행할 정도로 호응도 좋다.

또한, 같은 대전 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씨메스'도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타넨탈에 1억 원 규모의 '산업용 3D스캐너' 검사장비를 수출했다. 산업용 3D스캐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는 독일 수출 이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콘타넨탈의 브라질, 루마니아 공장 수출 기판도 확보한 상태다.

전북 센터에서는 드론 생산 스타트업 'JB드론코리아'가 우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홍콩업체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다. 탄소소재 드론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투자금을 통해 지난해 10월 공장을 설립했다.

부산 센터에 입주한 크라우드소싱 기반 신발제작 플랫폼업체 'ROOY'도 미국 유명 벤처캐피탈(VC)로부터 25억 원을 투자받으며 일찍이 해외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드릴생산 업체인 충남 센터의 '한국NSD'는 지난해 8월 터키에 4만3500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추가적으로 2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도 준비 중에 있다.

충남 센터에서는 피부진단 IoT 하드웨어업체 '웨어러블'이 두각을 나타냈다. 이미 글로벌 하드웨어 크라우드펀딩 '인디고고'를 통해 1억2000만 원



규모의 선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전 세계 제품 중 약 9%에 해당한다.

◇융합 통한 아이디어로 눈길 =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합을 통해 개발한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스타트업들도 눈길을 끈다. 전북 센터에 입주한 '명품한지장판'은 전통한지를 장판과 벽지에 접목한 제품 개발로 호응을 얻었다. 현대산업개발, 한옥호텔 등과 20억 원 납품계약을 체결, 최근엔 월 매출도 5000만 원 이상 증가했다.

OLED조명 제조에 나선 스타트업도 나왔다. 충북 센터의 '해찬'은 자체 개발한 OLED조명을 서울대 도서관과 신라호텔에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일본에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광주 센터에 입주한 '맥스트'는 증강현실을 이용해 자동차 매뉴얼을 제작해 눈길을 모았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제품을 현대차 쏘나타에 공급하면서 미국 LA모터쇼에서 공식 론칭했다. 올해는 국내는 물론, 유럽과 중동 등 해외에도 출시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thec98@

KB금융그룹

## KB손해보험

# 국민과 함께 희망을 쓰다

국민을 잘 아는 금융솔루션과  
보험 전문가의 노하우로  
걱정없이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저 김연아의 평생 희망파트너는  
KB손해보험입니다."

아이들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무배당  
**KB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3320호 (2016.7.11)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www.kbinsure.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연령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평생 희망파트너  
**KB손해보험**

# 고위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5년새 1.7배↑

검찰·경찰·법무부 등 사법당국 가장 많아... 2~4급 391명  
누락해도 과태료·시정조치 뿐... 솜방망이 처벌에 안지켜져

고위 공직자의 허위 재산신고가 5년 새 1.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검찰·경찰·법무부 등 법을 수호하는 사법당국에서 허위신고자가 가장 많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부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기관별로 신고한 재산을 심사한 결과, 재산 누락 등 허위 신고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무원이 2011년 322명에서 2012년 385명, 2013년 429명, 2014년 467명, 2015년 54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재산정보 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2011년 69명, 2012년 89명, 2013년 83명, 2014년 121명, 2015년 153명으로 같은 기간 2배 이상 급증했다. 비공개대상인 2~4급 공무원은 같은 기간 253명에서 391명으로 증가했다.

일례로 공무원 A씨는 재산 정기변동 신고 때 본인 예금과 채무 21건 2억2100만 원과 부친 예금과 채무 등 6억9300만 원 등 총 46건 9억1400만 원을 누락했고, 공무원 B씨는 배우자 명의 건물 6억3100

만 원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

2015년 허위재산신고로 처벌받은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1급 이상 공직자 중에선 경기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 15명, 경상북도 11명, 국방부와 인천시 각각 1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경기도 공무원 16명 중 단 1명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5명에게만 경고 및 시정조치만 내렸다. 강원도는 15명 모두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만 했고, 경상북도는 11명 중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여전히 미약한 현행 처벌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처벌규정은 5000만 ~3억 원 이하 누락 시 경고 및 시정조치, 3억 원 이상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요구를 요청하도록 돼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자의 재산 허위신고가 늘어나는 원인은 재산을 감춘 것이 들떠나 처벌받는 것이 불편한 재산공개에 따른 여론재판 등의 불이익 보다 작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4급 공무원 가운데선 사법당국의 재산 허위신고가 도드라졌다. 전체 391명 중 경찰청 82명, 대검청 33명, 법무부 32명으로, 10명 중 4명 가까이 사법당국 공무원이었다. 이외에 국민안전처 25명, 교육부 24명, 산업통상자원부 23명, 국방부 19명, 관세청 14명 순으로 재산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중 기자 zerg@

## 중재부장관 만난 유일호 부총리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중국 청두를 방문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현지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 박성택 중기 회장, 中企경제 확산 ‘협동조합활성화추진단’ 등 구축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변화를 위한 내부 전담조직 구축을 지시했다.



2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임원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확산을 위해 ‘협동조합활성화추진단’과 ‘바른경제추진TF팀’ 구성을 주문했다. 협동조합활성화추진단은 송재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부서장급을 실무 인력으로 배치시켰고 바른경제추진TF팀도 경제정책본부장을 팀장으로 내세웠다.

부회장과 본부장급을 팀장으로 내세운 것은 전담조직에 대한 박 회장의 의지가 크다는 방증이다. 중기중앙회는 지금까지 전담부서 설치 시 부서장을 팀장으로, 실무자를 부서원으로 배치해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공정경쟁·자원분배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박 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유 기자 thec98@

## 한수원, UAE 원전 1조 용역 수출 2030년까지 총 3000명 인력 파견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에 1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운영 용역 수출을 성사시켰다.

한수원은 UAE에 건설 중인 한국형 원전 4기의 운영지원을 위해 UAE원자력공사(ENEC)와 준공 후 운영지원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UAE원전 4호기 준공 후 10년 뒤인 2030년까지 UAE 규정에 부합하는 발전소 유지·운영 인력 및 운영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10명, 총 3000여 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운영인력 1000명, 운영인력 2000명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원전 운영과 관련한 인력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 계약은 6억 달러(약 6800억 원) 규모다. 주택, 교육 등 간접비 지원 3억 2000만 달러(약 3600억 원)를 더하면 총 9억 2000만 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파견인력 1인당 연평균 약 3억 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인력 파견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ENEC가 부담한다.

한수원은 이번 운영지원계약을 계기로 40년간 국내 원전 운영을 통해 축적된 원전운영 경험과 지식을 UAE 원전과 공유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 ‘폭스바겐 운명의 날’... 과징금 최대 3200억

### 환경부 비공개 청문회 열어 서류조작 등 마지막 소명 제공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의 차량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25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폭스바겐 측은 소명을 듣는다.

배출가스 및 시합성적 조작으로 위기에 몰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사실상 마지막 소명 기회인 만큼 서류조작 과정에 대한 해명과 인증취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주요 차량의 인증 조작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행정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29일을 전후해 인증 취소와 판매금지 등 행정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인증서류 등 정부 지적 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재인증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1일 딜러들에게 행정처분이 예고된 79개 모델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한다고 이메일로 통보하며 부정적 여론을 되돌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새 과징금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판매처리는 청문회 결정이나 과징금 책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오는 29일을 전후해 인증 취소와 판매금지 등 행정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인증서류 등 정부 지적 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재인증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1일 딜러들에게 행정처분이 예고된 79개 모델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한다고 이메일로 통보하며 부정적 여론을 되돌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새 과징금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판매처리는 청문회 결정이나 과징금 책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새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면 아우디·폭스바겐·벤츠 등 32개 차종이 적발된 폭스바겐에는 단순 계산으로도 최대 32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12만 5000대에 대해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이번 서류 조작이 판명된 차량 32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을 28일 이후 부과하면 과징금은 최대 3200억 원이 된다. 하지만 과징금을 차량 매출액의 1.5~3%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대 1000억 원을 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 폭염에 ‘문 열고 냉방’... 전력예비율은 바다

### 2년만에 예비율 10% 밑돌기도 일시적 수요 증가 정전사태 우려

연일 폭폭 찜는 가마솥 더위 속에 전력 사용량이 치솟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예비율이 10%를 밑돌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에도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업소들은 줄처럼 줄지 않고 있다.

25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3시 최대 전력수요가 8050kW까지 오르면서 전력 운영 예비율은 1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에도 오후 2시 5분 기준 전력수요가 6900kW를 기록, 10.93%의 예비

최근 5년간(여름철) 최대 전력 실적 (단위: 만Kw, %)

연도	일시	예비율	비율
2016년 7월 11일	728.4	9.3	
2015년 8월 7일	1267.9	16.5	
2014년 7월 25일	807.4	10.6	
2013년 8월 19일	471.9	6.4	
2012년 8월 6일	279.1	3.8	

\* 출처: 한국거래소  
\* 예비전력 예비율

율을 나타냈다. 지난 11일에는 전력 수요가 7820만kW에 달하면서 예비율은 2년 만에 한 자릿수(9.3%)로 추락했다. 전력예비율은 생산된 전력 중 기업·가정에 공급하고 남은 것으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예비율을 15%로 보고 있다.

지난해엔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한 8

월에도 전력 예비율은 16.5%까지 떨어지는 데 그쳤다. 올 여름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며 냉방기가 가동이 크게 늘어 전력 사용량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력 당국의 냉방수요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사상 처음 8000만kW를 넘어선 8170만kW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절전 필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업소들의 ‘개문냉방’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한여름인 매년 7~8월 개문냉방을 단속하고 있지만,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업소는 줄지 않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 대량실업 대책 위한 추경이라면서 일자리 2조 미만 배정...임시직 그쳐

구조조정 실업자 5만명 통계도 주먹구구... 추경 효과 의문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구멍구멍 통계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업 퇴직자를 약 5만 명으로 예상하고 이번 추경안을 짰다. 이 중 1만 명은 핵심인력으로 지정해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나머지 4만 명은 전직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약 5만 명으로 예상한 것이 정부가 직접 조사한 통계가 아니라 관련 협회가 작성한 통계라는 것이 문제다. 통계는 대형조선 3사를 포함해 11개 조선사에서 받은 숫자”라고 밝혔다. 추경 자료를 보면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2017년까지 5만6000~6만3000명 감축을 예상했다.

현재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정부 통계는 통계청이 작성한 6월 실업률인데 경남이 1%포인트, 전남이 0.6%포인트, 울산이 0.4%포인트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부산은 오히려 0.8%포인트가 떨어졌다.

정부는 또 이번 추경사유를 대량실업으로 정하고도 정작 일자리 대책에는 2조 원도 배정하지 않고 그나마 한시일자리 확대에 그쳐 추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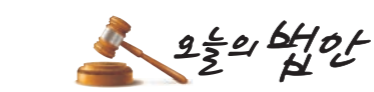
기재부 관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4000억 원(3만6000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1000억 원(4만4000명)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5%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5000억 원으로 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라면 1인당 625만 원을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것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임시직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일자리 창출효과를 과다하게 계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3.0%로 전망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 채권추심 수수료 채권액의 30%로 제한



### 더민주 이학영 의원 추진

채권 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등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을 어긴 불법 추심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권자 절차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는 자에게 채권금액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지급 또는 약속하고 있다.

또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주 종사자들에게 채권금액 규모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해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불법과잉 추심이 없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불법 채권 추심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900건을 기록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 “중앙은행 금리 인상해야 물가 오른다”

## 전통 경제학 뒤집은 美세인트루이스 연은

### 1954년 이후 금리·물가 분석 한은 금통위원 “동의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 연방은행으로부터 나왔다. 이는 전통적 경제학 통념인 금리를 인하해야 물가가 오른다는 기존 데일리 룰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25일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스티븐 윌리엄스,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 ‘내외 피셔리뷰, 저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급진적 아이디어 또는 가장 눈에 띄는 해결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4년 3분기(7~9월)부터 2015년 4분기까지를 분석한 결과 미 연준(Fed)이 금리를 올릴 때 물가가 올랐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명목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장의 기대인플

레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에 이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양적완화(QE)와 포워드 가이드스 등 각종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쓰기도 저인플레이션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도 전통적 경제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수신 신한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에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Fed의 금리인하와 QE로 인한 유동성 공급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식 상승에 기여했다. 이 같은 자산효과는 논란은 있지만 미국의 안정적 소비를 가능케 했고 이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본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잘 알려진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하다니 무척 놀랍다. 동의가 안 된다”라고 평가했다.

김민현·전효정 기자 kimh21c@

‘포켓몬고 성지’ 간절곶 우체통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Pokemon GO)’가 울산 울주군 간절곶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소식이 사회관계 망서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난 주말 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았다. 특히 휴가철임에도 인근 진해 해수욕장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간절곶을 찾는 진풍경이 펼쳐져 ‘포켓몬 고’ 특수우체통 등대 맞은편 소망우체통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켓몬 고’ 게임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 “론스타 2800억원 배당 무효” 외환銀 소액주주 소송 각하

## 대법원 “하나금융과 합병...자격 상실”

외환은행 헐값매각으로 ‘떡튀’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의 2800억 원 배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대법원은 소송을 낸 소액주주들이 외환은행 주주들이었지만, 하나금융과의 합병으로 인해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고 주주총회 무효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김기준 씨 등 2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주주총회결의 당시 외환은행의 주주였지만,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주가 아니고, 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주총회결의나 배당금 지급이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후의 시장주가에 근거한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을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주주총회 결의가 주식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직접 다룰 수 있는 것이어서 주주총회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2011년 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 지위(지분51%)로 의결권을 행사해 2800억 원대 배당을 받았다. 외환은행은 이듬해 하나금융에 인수됐고, 론스타는 4조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씨 등은 론스타가 발행주식 총수의 4%를 넘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 주력자’인데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좌영길 기자 jy97@

# “내가 덮어줄게” 뒷돈 챙긴 세무공무원 실형

## 대법원, 징역 1년2개월 선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면서 “지위를 이용해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관련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위증 범행을 꾸며 사법체계에 근간을 흔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김 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일하던 2011년 12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허위 신고한 A씨 측으로부터 조사 무사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식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사장에게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위장가맹점 통보를 철회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세무서는 이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고 여신금융협회에 ‘위장가맹점 업체’로 통보했지만, 식당 사장이 김 씨의 말대로 하자 행정지도 처분만 했다.

비리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씨는 징계 불복 소송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해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고발 4년만에 재판대로

## 육사·홈플러스 임직원 5명 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육사와 홈플러스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 소위는 최근 검찰의 고발 요청을 받고 존 리 전 대표 등 육사 관계자 3명과 홈플러스 관계자 2명을 상대로 고발 여부를 심의해 이들을 모두 고발 조치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은 이들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미 2012년 8월 육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육사를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2년 당시 육사가 가습기 살균제 생산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육사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보고받았어도 제품의 콘셉트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PB(유통업체 자체 브랜드)제품에 넣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도훈 기자 sogood@

# 포털 영화정보 소유권 공방...네이버 勝

## DB제공자 “계약 끝난 뒤 계속 사용...부당이득금·손해상금 달라” 법원 “이미 5억2600만원 지급...정보 대한 권리 양도 대가로 봐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개인이 축적한 영화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지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흥모 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흥 씨는 2003년 8월 자신이 축적한 영화정보를 3년 동안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버

는 기존에 흥 씨가 가지고 있던 정보는 1억 원을 지급하고 구입했고, 소유권도 자신들이 갖기로 했다. 정보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흥 씨는 3년 계약이 끝난 뒤에는 1년짜리 계약을 갱신하면서 2011년 6월까지 관계를 유지했다. 네이버가 2011년 마지막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정보를 사용하자 흥 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흥 씨는 자신이 영화정보 이용을 허락했을 뿐, 권리를 넘긴 게 아니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5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가 1억 원을 내고 기존의 정보를 구입한 이상 영화정보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소유권을 정당하게 보유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5억2600여만 원을 흥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며 “흥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인식하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좌영길 기자 jy97@

# 안전 외면 ‘이케아 서랍장’ 정부가 직접 조사

## 기술표준원, 안전요건기준 강화키로

최근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이케아 서랍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모든 서랍장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성 조사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국산 서랍장에 대한 안

전성 조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현행 가구 안전기준에 규정돼 있는 유해물질 안전요건 외에 이번에 문제가 된 전도시험 안전요건을 추가해 서랍장이 넘어져 아이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논란이 된 이케아 서랍장 ‘말름(MALM)’에 대해 판매 중지도 검토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이케아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표원은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라 위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품안전 기본법’에 따라 시정권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근 안전요건을 강화한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을 적용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가구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KIBO 기술보증기금**      생각이 현실이 되는 길, 기술보증기금이 함께 합니다.

# “내일은 맑음”

창조경제의 내일을 지원합니다.

오늘, 한번쯤 하늘을 올려다보셨나요?  
하늘이라는 무한 도화지위에 꿈꿔왔던 창업의 꿈을 활짝 펼쳐 보세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땅 위에 그 꿈을 심어 보세요.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R&D보증  
기술융합우대보증 / 지식재산(IP)보증  
신성장산업 시설자금 보증

**3대 중점지원 분야**

기술창업지원 / R&D 활성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각종 인증·평가업무**

벤처기업 인증 / 이노비즈기업 인증  
기술신용평가(TCB)

**고객센터 1544-1120**





KB금융그룹

KB Cool~寒 환전이벤트

# 환율은 우대받고! 여행비는 지원받고!



올 여름, 아이오아이(I.O.)의 여행길엔 KB환전서비스



## Event 1 환율 우대는 KB가 좋다!

- 대상고객: KB네트워크 환전(KB외화 기프트콘 포함) 및 외화ATM기를 이용하여 외화현찰 사시는 개인 고객
- 내용: 환율우대 및 KB GIFT CARD 경품추첨 증정  
경품추첨 제외 대상 - KB네트워크환전; 영업점(가상계좌 포함)에서 신청한 고객 - 외화ATM기: 타행카드를 이용한 고객
- 환율우대: 주요통화 (USD, JPY, EUR) 80% / 기타통화 50%  
\*KB네트워크 환전과 이벤트 환율 우대율 중 고객에게 유리한 환율 적용  
\*총 17개: GBP, CAD, CHF, HKD, SEK, AUD, DKK, NOK, SGD, NZD, THB, CNY, PHP, VND, TWD, MYR, IDR
- 경품: KB GIFT CARD (5만원권) 30명

## Event 2 해외 여행은 KB가 쏜다!

- 대상고객: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외화현찰 사시는 개인 고객  
(여행자수표 포함 / 서울역 환전센터 제외)
- 내용: 여행상품권 및 KB GIFT CARD 경품추첨 증정
- 경품: 1등 해외여행 상품권 (300만원권) 1명 (제세공과금 고객 부담)  
2등 해외여행 상품권 (100만원권) 5명 (제세공과금 고객 부담)  
3등 KB GIFT CARD (5만원권) 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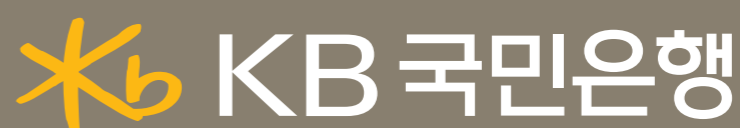
※이벤트 기간 - 2016. 6. 13 ~ 2016. 9. 13

※추첨(예정)일 - 2016년 9월 26일 (월)

※당첨자 발표(예정)일 - 2016년 9월 30일 (금)

※경품지급방법 - 당첨자 환전 거래 영업점으로 배송 예정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추첨은 난수 추첨 방식으로 Event (1, 2) 별 추첨기회는 각 1회에 한하며 이벤트 중복 당첨 시 상위 경품으로 증명합니다.  
 ※ 이벤트 당첨 시 제공해 드리는 해외여행 상품권(국민관광상품권) 수령 시 유의사항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2016. 10. 31(월)까지 경품 수령거부 또는 연락처 오류로 인한 연락 불가시 당첨 무효처리 되므로 경품 수령을 위한 고객정보상의 연락처(휴대폰 등)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21호 (2016. 6. 10)



# 박삼구, 금호고속·타이어 다시 품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해 사모펀드(PF)에 매각했던 금호고속을 1년 만에 되찾기로 결정했다. 최근 매각 작업에 착수한 금호타이어 인수까지 마무리되면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숙원 사업인 그룹 재건에 성공하게 된다.

2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지난해 9월 사모펀드 컨서스KHB에 3900억 원을 받고 팔았던 금호고속 지분 100%를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금호고속은 매년 최대 800억 원의 현금을 창출해내는 알짜 회사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6월 금호고속을 매각한 지 3년 만에 사들였다가 그룹 차원에서 금호산업 인수자금 마련이 시급해지자 2년 3개월 만에 금호고속을 되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받고 3개월 만에 다시 매각했다. 이번 금호고속 총 인수

## 지난해 금호타이어 사모펀드 매각 지분 재매입 타이어도 9월경 인수 추진... 그룹 재건 가속도



금액은 컨서스KHB로부터 받았던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40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그룹 창업 70주년을 맞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해 금호산업 재인수에 이어 올해는 금호고속, 내년에 금호타이어까지 되찾게 되면 그룹 재건에 성공하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올해는 인수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호고속 인수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주제로 금호고속을 인수한다는 방침 아래, 인수에 필요한 1500억 원 안팎의 현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인수대금 4000억 원 중 20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액은 자동 승계하고, 이미 컨서스KHB 펀드에 제출한 500억 원으로 금호고속 지분 일부를 확보한 상태다.

박 회장은 금호고속을 인수한 뒤 최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절차에 착수한 금호타이어 인수에 나설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도 "산업은행이 9월 중순쯤 금호타이어의 매각 공고를 낼 계획으로 파악돼 금호타이어 인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지분 대상은 우리은행 14.15%, 산업은행 13.51%, 국민은행 4.16%, 수출입은행 3.12% 등 모두 42.1%로 금액으로는 6500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을 경우 매각가는 1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7228억 원의 가격에 금호산업을 인수하면서 5000억 원 가량의 빚을 떠안은 박 회장이 단독으로 금호타이어 인수에 필요한 1조 원대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인수전에 뛰어들 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해 우군에게 도움 요청 없이 오로지 개인 스스로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가보니 LG전자 '모터·컴프레서 생산기지' 창원공장

# '냉장고의 심장' 5초에 1대씩 "오차 제로" 완벽 품질테스트

### 생산체제 수직 계열화 갖춰 올해 연구개발 인력도 20%↑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에 위치한 창원 1공장 내 냉고 컴프레서 생산라인에서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를 만들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문제는 현장에 있다.’

지난 22일 방문한 LG전자 창원 1공장 B1동 2층, 냉장고의 심장이라 불리는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생산라인 초입에 적혀 있는 문구다. 생산성 효율화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품질이기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직원들의 다짐이다.

B1동 2층의 3개 라인에서는 냉장고용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냉고용 정수기에 사용되는 소형 컴프레서, 일반 컴프레서 등을 생산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약 5초에 컴프레서 1개씩 만들어진다. 인버터는 모터의 회전을 수조절해 소비 전력을 절약하는 장치다.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는 70미터 라인을 통과하며 조립, 용접 등 총 10개의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이후 크기, 형태 등이 다른 컴프레서들은 제조 공정이 모두 끝난 후 뒤쪽의 검사실로 모인다. 이후 컴프레서는 검사 공정까지 완료한 후 냉고, 정수기, 에어컨 등을 만드는 생산라인으로 옮겨진다.

세탁기용 다이렉트드라이브(DD)모터는 창원공장의 11개 라인 중 3개 라인에서 만들어진다.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모터 중에서 DD모터는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LG전자는 1998년 인버터 기술을 기반으로 세탁기용 DD모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를 통해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인버터-DD모터 구조를 활용해 두드리기, 주무르기, 비비기 등이 가능한 6모션 세탁 방식을 선보였다.

DD모터 라인은 다른 라인과 달리 5대의 로봇이 분주하게 모터를 옮기고 있다. 코일을 감는 공정도 위쪽과 아래쪽 두 방향에서 동시에 이뤄져 6초에 DD모터 1대씩 생산된다. 생산라인 옆에 있는 신뢰성 실험실에서는 다양한 모터들이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다. LG전자가 10년 무상보증을 할 만큼 품질을 자신한다.

LG전자 모터BD담당 박정현 상무는 "LG전자는 핵심부품에서 완제품까지 H&A사업본부 내에 수직 계열화를 갖추고 있다"며 "올해 모터와 컴프레서 분야의 연구 개발 인력을 20% 이상, 개발비는 지난해 대비 2배로 늘려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 르노삼성자동차 "엔진 부품 국산화"

### '첨단 엔진 생산 프로젝트' 국내 유치 부품 수입 대체 효과 年131억 기대

르노삼성자동차가 차세대 신기술을 결합한 첨단 엔진 생산 프로젝트 유치 경쟁에서 최종 선정됐다. 르노삼성차는 최근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소속 해외 엔진 공장들과의 첨단 엔진 생산 프로젝트 유치 경쟁에서 부산시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차세대 엔진 생산 시설 유치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SM6 등에 탑재되는 엔진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며 연간 131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산공장에서 생산된 엔진을 프랑스, 스페인 등에 소재한 르노 그룹의 차량 생산 공장으로 수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첨단 엔진 프로젝트 유치 성공은 성능과 연비가 대폭 개선된 1.8ℓ GDI 터보 MR엔진의 부산공장 생산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르노의 에스페이스(ESPACE), 메간(MEGANE), 알핀(ALPINE) 등의 차량에 장착되는 1.8ℓ GDI 터보 MR엔진을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할 경우 연간 984억 원 상당의 추가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SM6 등에 장착되는 1.6ℓ GDI 터보 MR엔진 및 2.0ℓ GDI MR엔진 생산에 필요한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일본 요코하마 닛산 공장, 중국 동펄 르노 공장 등 첨단 엔진 설비 시설 유치 경쟁을 벌였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의 유치 성공은 엔진 핵심 부품 국산화가 부산공장의 생산물량 증가 및 수출 기회 확보에서 더 나아가 지역 협력업체의 매출 증대, 부산지역의 고용안정과 신규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산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민관 협력이 이뤄낸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 전기차 아이오닉, 유럽 진출 청신호

### 내달 英출시 앞두고 국내보다 89km 긴 '1회 충전 280km 주행' 공인



다들 말 영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현대 자동차의 아이오닉 전기자동차(사진)가 유럽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 280km를 인정받았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유럽에서 사용되는 연비 측정방식인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 280km를 기록했다. 이는 측정방식이 보다 엄격한 국내에서 인정받은 191km(복합기준 : 도심 206km, 고속도로 173km)보다 약 47% 늘어난 것이다.

국내에서는 '도심 모드'로 배터리가 방전 때까지 주행하고 나서 재충전 후 '고속 모드'로 전환해 측정된 뒤 합산한 결과의 약 70%를 1회 충전 주행거리로 인정한다. 반면 유럽에서는 NEDC 단일 모드로 측정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유럽기준으로 200km 주행거리를 인정받은 수입 전기차가 국내에 들어오면 150km 수준까지 공인 주행거리가 떨어지게 된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에는 △28kWh의 고용량 리튬이온폴리머배터리 탑재 △고

효율 전기차 시스템 △알루미늄 소재 적용 등 차량 경량화 기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에어로 다이내믹 디자인 등 전방위 고효율 요소들이 대거 적용됐다. 최대 출력 88kW(120ps), 최대토크 295Nm(30kg·m) 모터를 적용한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도 보였다.

현대차는 다음 달 중 영국에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heejin@

## 삼성전자, 멕시코서 웨어러블 3종 출시 기념 '나이트 런' 행사



삼성전자가 23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기어 아이콘X', '기어핏2', '기어360' 등 웨어러블 신제품 3종 출시를 기념해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야간 달리기 '나이트 런' 행사를 개최했다.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스포 경기장을 출발해 5km와 10km 거리를 돌아오는 두 가지 코스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약 2500여 명의 소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우승자 등 약 60명에게는 트로피와 콘서트 입장권 등 다양한 상품도 제공됐다. 기어 아이콘X는 선이 없는 코드프리 이어셋으로 내장 메모리를 탑재해 단독 뮤직 플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다. 기어핏2는 GPS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 밴드로 스마트폰 없이도 운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기어360은 360도 촬영이 가능한 VR 카메라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삼성전자, 95개 반도체 협력사에 상반기 인센티브 152억

### 2010년 도입... 대표적 상생모델

삼성전자가 25일 95개 반도체 협력사에 152억5000만 원 규모의 상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 대상 협력사 임직원들은 약 1만여 명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

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두 가지의 협력사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생산·품질 관련 협력사를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생산성 격려 인센티브'가 도입된 데 이어 2013년에는 '환경안전·인프라 관련 협력사'를 대

상으로 한 '안전인센티브'가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연초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로 나눠 지급하고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전액 협력사 직원들에게 분배된다.

허중상 제이에스아이씨테크 대표는

"이번 인센티브가 휴가를 앞둔 임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환경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인센티브 외에도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사 인력 파견제도', '환경안전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협력사들과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gujiy@

## 2분기 선방한 이통3사 합산 영업이익 9851억 2.9%↑ SKT, CJ헬로 리스크 근심

지난 1분기 마케팅비 감소로 호실적을 기록했던 이동통신 3사가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는 이달 28일과 29일,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초 2분기 실적을 각각 발표한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통 3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98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전분기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마케팅비 감소와 결합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IPTV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T는 2분기 매출액 5조5430억 원, 영업이익 37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4.1% 증가하면서 가장 견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무선 가입자당매출(ARPU)도 전 분기 계절성 요인이 사라지며 3만6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0.2%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LG유플러스는 2분기 매출액 2조73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영업이익은 1778억 원으로 같은 기간 5.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익 감소 요인은 회계 방식 변경 탓이다.

SK텔레콤은 같은 기간 매출액 4조 2753억 원, 영업이익 43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 4.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건비 일회성 요인이 약 1100억 원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익 개선은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CJ헬로비전 인수 실패는 위협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인수가 불발되면서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CJ헬로비전 주식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 8.6%(667만 1993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개 매수를 통해 1만2000원에 CJ헬로비전 주식을 매입한 상태다. 현재 CJ헬로비전 주가가 9300원대로 손실액은 180억 원에 달한다. 김범근 기자 nova@

## 알뜰폰업계는 '1만원대 데이터 요금' 승부수

### '정체 해소' 미래부 지원책 발표

최근 가입자 정체 현상을 보이면서 주춤하고 있는 알뜰폰이 1만 원대 실속형 데이터 요금제 등을 통해 반전을 노린다. 이동통신 3사보다 최대 25%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알뜰폰 지원 방안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알뜰폰의 서비스 원가를 결정하는 망(네트워크) 임대료에서 데이터 상품과 관련된 비용을 낮춰 저렴한 데이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망 임대료의 기준 역할을 하는 SK텔레콤의 도매 대가에서 올해 알뜰폰이 낼 데이터 비용을 지난해보다

18.6% 인하한다. 동시에 음성 무제한제 때 나가는 추가 비용도 요금 구간에 따라 5.7%에서 43.4%까지 내렸다. 더불어 알뜰폰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파사용료(연 330억 원)를 1년 더 감면 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알뜰폰 업체들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포기하고 받는 '20%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한 이통사 상품보다 17~25%가량 더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준비 중이다. 데이터 300MB~1GB에 음성 정액인 요금제도 CJ헬로비전과 프리텔레콤은 SK텔레콤의 동급 요금제보다 37~56.7% 저렴한 월 1만~1만6000원 수준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 한류 탄 중견 뷰티... 中 시장 '직진'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브랜드들이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한류 화장품 수출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들의 중국 시장 약진은 올해도 지속될 것인 전망이다.

25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업체가 한류 드라마로 불이 지펴진 중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화장품은 한류 드라마 효과로 올해도 지난해보다 40% 가까운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두각을 보이고 있는 곳은 코스메트리다. 2004년 화장품 유통 전문회사로 출발한 코스메트리는 지난해부터 화장품 제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한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여기에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3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라인업을 더욱 확장했다.

코스메트리가 가장 역점을 둔 시장은 단연 중국으로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코스메트리의 '닥터클릭 3스텝 마스크'는 중국시장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출시 1년 만에 1000만 장이 넘는 판매 실적을 올렸다. 지난 6월에는 세계적인 헤어전문 업체인 폴 미첼과 미용제품의 서울 총판에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내수 시장 구축과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전략적 판단 차원에서다.

천재원 코스메트리 대표이사는 "지난해 투자 유치를 통해 재무적 안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자본 규모를 갖추 수 있었다"며 "올 하반기부

드라마 효과... 올 40% 성장 전망  
코스메트리, 마스크팩 천만장 판매  
바닐라코, 현지매장 100여곳 확대  
잇츠스킨은 현지공장 설립 움직임



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증대까지 기대돼 당초 잡았던 올해 매출 목표를 예상치보다 높은 100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2012년 중국에 진출한 중견 브랜드 바닐라코는 오프라인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뷰티 브랜드다. 바닐라코의 대표 제품 '클린 잇 제로'는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브랜드를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피부에 닿으면 오일로 녹아 내리는 사베트 제형의 클렌징 제품인 '클린 잇 제로'는 젊은 메이크업도 자극 없이 지워주는 동시에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이 탁월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클린 잇 제로'는 중국에서의 인기를 기반으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총 437만 개가 판매됐다. 3.6조마다 하나씩 판매된 것이다.

바닐라코 관계자는 "현재 상하이, 베이징 등지에 16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50~300개 매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팽이 크립'의 신화, 잇츠스킨의 중국 시장 공략도 가속화되고 있다. 잇츠스킨은 6년 전 매출이 125억 원에 불과한 중소 벤처기업이었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해 지난해 매출액 30%의 원, 영업이익 118억 원을 기록, 명실상부 국내 뷰티업계 중견 기업으로 우뚝 섰다. 잇츠스킨 측은 최근 일반 화장품 15개 품목의 위생 허가를 취득했고, 모회사인 한불화장품이 중국 현지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전망이 밝다는 입장이다. 이선에 기자 isa@

# 식품업계 "싱글슈머 잡아라"

외식·배달 이용 1인 가구 비중 55.1%  
설빙 '1인용 빙수' 등 타겟마케팅 선택

혼자 식사를 해결하는 '싱글슈머(Single+Consumer)'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업계가 이들을 위한 다양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싱글슈머들의 외식 및 배달 서비스 이용 비중은 절반이 넘는 55.1%(농림축산식품부 2015 식품 소비량 및 소비행태 조사)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식품업계는 싱글슈머들이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등 싱글슈머 맞춤형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굽네치킨은 굽네 불케이노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불케이노 치밥 레시피'를 SNS,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며 싱글슈머들을 공략하고 있다. 일정 금액을 추가하면 즉석 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불케이노 치밥 레시피'를 SNS,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며 싱글슈머들을 공략하고 있다.

식사뿐 아니라 디저트도 싱글슈머들이 즐길 수 있도록 1인용 디저트 메뉴가 출시되고



불케이노 치밥 레시피. 사진제공 굽네치킨

있다. 디저트 카페 설빙은 2~3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빙수를 제공하다가 1인용 빙수인 인절미 설빙고, 인절미 아이스크림 설빙고 등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마트는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국내산 냉동채소 구간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국내산 냉동채소들은 신선채소를 세척한 후 용도에 맞게 데치거나 절단하는 등 1차 손질을 마친 후 영하 35도에서 급속 냉동한 것으로 저장성은 물론 바로 조리에도 사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갖췄다. 이선에 기자 isa@

# "포켓몬GO 고맙다" 유통·여행업 신바람

G마켓, 관련 장난감 매출 한 달 새 35% 늘고  
인터파크투어, 속초 객실 판매 한 주 새 56%↑

증강현실(AR)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고(GO)' 열풍이 국내에도 불어닥치면서 유통, 여행업계도 덩달아 신바람이 나고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게임 구역을 설정해 진행되는 포켓몬 고는 국내의 경우 강원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 즐길 수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원 속초 지역 여행 상품이 인기를 얻고, '포켓몬스터' 캐릭터 관련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G마켓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에서 첫 실시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7일(한국 시간)부터 지난 20일까지 포켓몬 관련 장난감의 매출이 전월 대비 약 35%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장난감 전문 온라인몰인 토이즈리스토는 포켓몬 열풍이 불면서 '포켓몬 카드 11탄'의 사전 예약 판매를 25일까지 진행한다. '포켓몬 카드'란 원작인 '포켓몬스터' 내 포켓몬 배틀을 카드게임으로 재현한 것이다.

속초 지역 여행 상품도 인기다. 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G마켓에서 판매된 강원 지역의 국내 콘도 및 리조트의 예약률은 전년 대비 170%, 여행 상품은 178%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파크투어는 포켓몬 고가 강원도 속초에서 실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12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숙박 예약앱 체크인나우를 통한 속초 지역 객실 판매 수가 전주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포켓몬 고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게임 구역을 설정해 진행되는 증강현실 결합 게임으로, 강원 속초 등 국내에서 가능한 지역은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터파크투어

에 인터파크투어는 포켓몬 고를 즐길 수 있는 속초, 양양, 고성 등 인기호텔의 성수기 객실을 사전 확보해 '포켓몬스터 너로 정했다' 기획전을 마련했다. 하나투어는 서울, 속초 왕복버스가 포함된 당일 여행상품을 1만 원대에 선보였다. 포켓몬들이 가장 많이 출몰한다는 속초 엑스포공원, 아바이 마을 등 속초의 주요 관광지에서 포켓몬을 사냥할 수 있는 일정이다.

하나투어 측은 "포켓몬 고를 즐길 수 있는 유행도와 속초 여행상품 판매량이 급증했다"며 "일본에서도 '포켓몬 고'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 관련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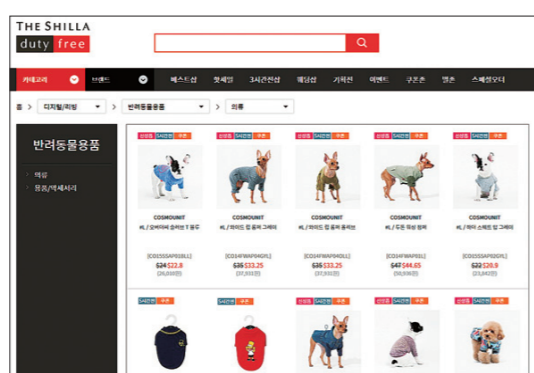
# 반려동물용품도 면세점에서

스니프·코즈모유닛 등 4개 브랜드  
업계 최초 신라인터넷 면세점 입점

반려동물용품 브랜드가 국내 면세점 업계 처음으로 신라면세점에 입점했다.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최소 9000만 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반려동물용품은 차후 면세점의 새로운 인기 카테고리라고 떠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신라인터넷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 브랜드는 '스니프', '코즈모유닛', '덴티스츠어포인먼트', '러프웨어' 등 4종이다.

지난 4월 말 애견의류 브랜드 스니프가 입점한 이래 다른 브랜드들이 차례로 입점했다. 입점 후 초기 3개월 동안의 주요 인기 제품은 의류였으나, 최근 들어 장난감, 밥그릇, 가방, 우비, 목줄 등 판매 물품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가장 최근 입점한 '덴티스츠어포인먼트'와 '러프웨어'는 지난 5월 말 판매



반려동물용품을 다루는 신라면세점의 온라인 물 화면. 사진제공 신라면세점

를 시작한 이후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전월 대비 각각 120%, 130% 늘었다. 신라면세점은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7월 중 '루이독'을 신규로 입점시킬 예정이다. '루이독'은 프리미엄 애견용품 브랜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롭고 신선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차별화된 면세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Sulwhasoo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자음단™으로  
비할 데 없는 윤기가 찬란히 빛나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생기가 없어 보인다면 피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트러진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피부 본연의 윤기를 끌어올려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산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고른 다섯 가지 성분으로 완성한 자음단™이 피부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 피부 균형을 잡힌  
건강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이제, 제대로 된 첫 단계 스킨케어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찬란한 윤기를 경험하세요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https://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 분양열기 틈타 다시 고개 든 '깜깜이분양'

대대적 홍보없이 조용히 정보 흘러 고의로 미분양 발생 수의계약 유동 불법 아니지만 일반 수요자들 피해 오피스텔·상가 청약 때 주의 필요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 유니트 전시관 모습.

편법 분양이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입지가 좋지 않거나 유명 브랜드가 아닌 소형 아파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명 '깜깜이' 분양이 분양 열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특히 객관적 자료가 없는 오피스텔을 청약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시행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불법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게 주요 혐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불법 사전분양이 진행됐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업계는 해운대 엘시티 중 최근 분양을 시작한 주거형 오피스텔인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사전분양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인들을 동원해 가구를 미리 판 뒤 해당 호수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웃돈을 받아 수익

을 남기는 분양 방식이 진행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깜깜이' 분양은 일반적인 분양 절차와 달리 사전에 정보를 차단해 고의적으로 미분양을 만들어 집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특별공급, 1·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 계약 등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깜깜이' 분양은 대대적 홍보 없이 조용히 정보를 흘려 청약경쟁률을 낮추고 고의적으로 미분양을 발생시킨다. 이후 추첨 없이 동·호수를 보고 계약을 하는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이 경우 소극적인 홍보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청약경쟁률을 낮춰 미분양을 발생시키면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청약료를 드러내지 않는 동시에 실제 계약물은 끌어올릴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시간, 돈을 모두 아껴 효율적으로 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런 분양은 인기가 다소 떨어지는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조성되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서 분양하는 경우 진행된다"며 "미분양으로 남으면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

파는 게 어려워진다 보니 건설사들이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주체자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청약료를 공개하는 게 향후 분양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굳이 대대적으로 정보를 노출해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청약을 통해 집을 구매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대부분 '깜깜이' 등의 방법으로 분양을 한다고 보면 된다"며 "사전분양을 한 뒤 이에 관심을 보이는 실제 청약자에게는 웃돈을 받아 팔아 수익을 나누기도 하지만 불법적 요소가 없어 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양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 관계자는 "깜깜이' 분양이 진행될 만한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에 청약을 넣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조건 역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한창 뜨는 물류단지 투자 눈여겨봐야 할 곳은 어디?

### 최영진 대가자의 현안진단

물류단지가 부동산 투자계의 화두다. 부동산 펀드나 리츠의 주요 투자대상으로 떠올라서 그렇다. 외국계 자본까지 대규모 물류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최근 서초구 한국트러더미널과 양천구 서부트러더미널, 금천구 시흥 산업재유통센터 등을 도시첨단 물류 시범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방안이 나오면서 물류단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사실 중소규모 물류창고 임대업은 지금도 대성황이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크고 작은 물류 창고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게 배경이다. 온라인 쇼핑몰은 신속한 택배를 위해 서울 외곽에 몰품 배달 거점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물류창고가 범람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 창고는 대부분 농사용으로 허가받아 일반 물류시설로 쓰는 불법 창고지만 빌려줄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마트·롯데쇼핑과 같은 대형 유통센터가 곳곳에 생겨나는 데다 이들의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로 물류창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와 함께 창고 설비 첨단화 바람도 거세다. 이제 물건만 쌓아 놓는 구식의 보관 기술로는 경쟁에서 밀린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창고 관련 일감이 크게 늘어날다는 징후다. 신규 물류 창고도 대거 생겨날 판이고 기존 시

설의 재건축도 활기를 띠 것이라는 소리다. 그야말로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물류시설이 속속 등장할 게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신선식품·음식료품·의류·출판물 등의 전문화된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도시지역에 9만5000㎡ 규모의 전문화 물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음식료품과 신선식품용 창고 수요가 전체의 73.5%를 차지한다. 도시형 전문 업종 창고 임대업의 투자 전망이 매우 밝다는 의미다.

분야별 창고 적지로는 신선식품·음식료품·의류·인쇄·출판물 등을 취급하는 일반 소비재는 서울 강서·구로·동작·금천구 등 서남권과 경기 광명·부천, 인천 부평구 등이 꼽혔다.

상대적으로 부지와 인력 확보가 쉬워 물류 단지 조성에 적격이라는 말이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제품 생산지와 가깝고 신속한 물품 배송도 가능해 여러모로 투자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지 여건이나 인력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면 대박이 기대된다는 말이다.

물론 물류창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곳이든 사업성이 없겠느냐는 자산가치 상승이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위치가 좋을수록 수익성은 좋아지게 돼 있다.

물류시설이라고 항상 호황을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 공급이 넘쳐나고 시설이 낡게 되면 첨단시설을 갖춘 창고에 수요를 뺏길게 뻔하다. 그러나 물류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곳이라면 성공의 단맛을 오래 느끼지 않겠는가.

물류시설도 상가나 주택처럼 위치가 중요하다.

choibak141@



### 전자상거래 커지며 투자가치 쑥 기존 시설도 '첨단화' 재건축 활기 서울 서남권, 경기 광명·부천 주목

##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군	읍면동	아파트명
7/25 (월)	접수	경기	평택시	철원동	평택지제역동문국모닝힐삼시(A-1 B/L) 2순위
			부산	기장군	정관읍
7/26 (화)	발표	경기	하남시	망월동	하남미사공공임대A-24 B/L
			경기	구리시	갈매동
7/27 (수)	접수	경기	구리시	갈매동	구리갈매보금자리(공공임대S-1 B/L) 2순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7/28 (목)	접수	경기	강동구	명일동	레이안명일역솔베뉴 2순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7/29 (금)	발표	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관신도시대방노블랜드(공공건설임대B-6 B/L)
			경남	양산시	평산동
7/29 (금)	접수	전북	전주시	송천동1가	전주에코시티데시앙2차(7 B/L, 12 B/L)
			인천	중구	운남동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7월 마지막 주 전국 9개 사업장에서 7055가구가 분양된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동구 '레이안명일역솔베뉴' 1900가구(일반분양 268가구),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유승한내골든뷰'

316가구, 인천 중구 운남동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577가구 등 3446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대구 북구 '북대구한신더휴' 1602가구 등 360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정경진 기자 jungkj@

## LH-한전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진출 모색

최대 공기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가 손잡고 'K-Smart City' 해외수출에 앞장선다.

LH는 한전과 22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모델(K-Smart City) 구축에 협력하는' 스마트도시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 패키지 수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LH가 보유한 도시계획, 정보통신(ICT) 기반 도시 인프라 구축 경험 등 신도시 개발 노하우와 한전의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지, 지능형 배전망 등 에너지 기술력이 결합된 융·복합형 K-Smart City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급격한 도시화로 신도시 개발 수요가 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을 모색하고 특히 쿠웨이트 등 주택·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동지역에 스마트그리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결합된 신도시 모델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존 도시를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시티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으로 LH 도시재생사업에 한전의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형 도시로 개발 중인 동탄2 신도시에 스마트그리드 기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기술교류와 연구과제 개발도 함께하기로 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Tel. 02-2046-2883 | www.facebook.com/alkeybookstory 알키

# 장기불황 · 저성장 · 저금리 시대, “당신에게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월급쟁이, 노후 걱정엔 잠 못 이루는 중년들을 위하여

**배우자 대신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주는 시스템 만들기**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너바나 지음 | 256쪽

투자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 부동산 고수들의 강력 추천

1년 적금 모아 집 1채씩, 10년만 투자하라!  
흠수저에서 금수저로, 인생 역전의 월급쟁이 부자 비결

대한민국 부동산 고수들이 먼저 읽고 실천한 바로 '그 책'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  
백완기 지음 | 2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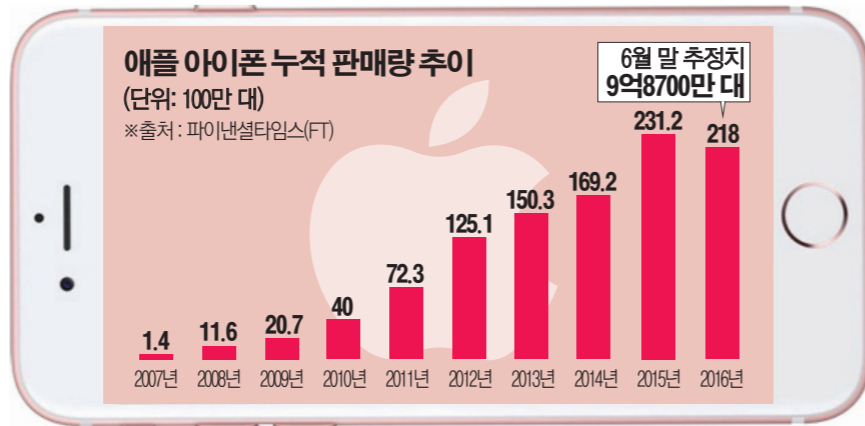
투자 분야 주요서점 1위 (노후를 위해 집을 저축하라) 전면 개정판

부동산투자서 시장을 역주행하는 투자계의 고전  
대한민국 서민이, 소액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 '10억대 판매' 아이폰... 신화 계속 쓸까

2007년 스마트폰 세 역사 시작  
지난달까지 9억8700만대 판매  
금세기 최고 베스트셀러 입증

고객 구형 아이폰·삼성 S7 선호  
2분기 판매 15~18% 감소 추산  
9월 신제품도 낙관·비관론 교차



애플 '아이폰'이 가전기기의 세 역사를 쓴다. 아이폰은 2007년 첫선을 보인 이후 9년 만에 10억 대 판매라는 대기록을 이달에 달성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10억 대 판매 기록은 가전업계에서는 좀처럼 드문 일로 아이폰이 명실상부한 금세기 베스트셀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새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FT는 강조했다.

애플리스트들은 지난 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4000만 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아이폰 판매는 지난달 말에 9억8700만 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주 새 기록이 수립된다.

벤처캐피탈업체 안드리아호로위츠의 베네딕트 에반스 파트너는 "10억 대 기록은 새 금자탑"이라며 "페이스북과 와츠앱 등 일부 인터넷 서비스만이 이 기록을 세웠다. 아이폰 판매량의 절반은 지난 2년간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10억 대가 지난 의미에 대해 에반스 파트너는 "아이폰은 2014년 수직 집계를 그만두기까지 3억9700만 대가 팔렸다. 또 아이폰 판매량은 1999~2015년 16년

간 일본 전체 디지털카메라 업체가 세

운 11억 대 기록에 육박하는 것이다.

노키아는 최고 전성기였던 2010년 한 해에만 휴대폰을 4억5300만 대 판매했으며 PC는 1981년 이후 누적 판매량이 올해 50억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가 모든 책상 위에 놓이기를 원했다"며 "스마트폰의 비전은 모든 이의 주머니 속에 컴퓨터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 기록은 아이폰의 성장 모델이 약화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 아이폰 판매가 전

년보다 15~18%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강한 거시경제적 역풍이 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고객은 이전보다 더 오래 구형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저가 스마트폰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7'는 현재 미국에서 '아이폰6S'보다 잘 팔리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애플이 9월에 내놓을 차기 아이폰은 이전 모델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낮은 편이다.

이에 애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이달 초 애플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3분기 연속 실적 발표에 앞서 애플 전망을 낮췄다"며 "애플이 지루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스트레이티지의 캐롤리나 밀라네시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스마트폰에서의 성공을 다른 부문에서 재현하기는 매우 불가능해 보인다"며 "애플도 애플워치의 성적이 실망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애플워치가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 美 LA 북부 산불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 북부 엔젤레스 국립공원에서 24일(현지시간)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22일 오후 LA 북쪽 50km 떨어진 샌타클라리타 밸리 지역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열돔현상(heat dome) 정체된 고기압으로 생성된 뜨거운 열기가 마치 돔에 갇힌 모양새를 띠는 고온 현상) 영향으로 남부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사흘간 산불이 태운 임야 규모는 89km에 달한다. 현재까지 소방대원 1600여 명과 소방헬기 15대, 소방차 122대 등이 투입됐지만, 산불 진화율은 10%에 불과하다.   
로스앤젤레스/로이터연합뉴스

## 테러 공포에... 유럽 여행업계 '벌벌'

브렉시트 여진에 안전 위험 겹쳐  
항공·호텔·명품브랜드 매출 타격  
관광산업 주가 20~50% 폭락



유럽 지역에서 최근 잇달아 테러가 발생하면서 올여름 유럽 관광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독일 뮌헨 쇼핑센터에서 22일 이란계 남성이 총을 난사해 9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현장 근처에서 자살했으며 현재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에서는 18일에도 바이에른 통근 열차에서 이슬람국가(IS) 추종자인 아프가니스탄 출신 17세 소년 1명이 도끼를 휘둘러 21명의 승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프랑스 남부 대표 휴양지인 니스에서는 튀니지 국적의 남성이 트럭을 폭주시켜 8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뮌헨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은 작지만 최근 들어 유럽에서 테러를 비롯한 잇단 흉악 범죄가 발생해 유럽이 테러 취약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항공업체인 물론 호텔, 럭셔리 브랜드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 호텔 예약의 경

지난 14일 터크 테러가 발생한 프랑스 남부 니스 해변에서 17일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최근 유럽 지역에 테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테러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테러 위험 고조에 관광객 유럽 금감이 우려되고 있다.   
AP뉴스

우 니스 테러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영국 런던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각각 2.7%, 8.3% 줄었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도 테러 여파와 경기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상반기 매출이 8~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인터내셔널도 테러와 환율 변동성 여파에 올해 상반기 매출 성장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는 관련 기업 주가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영국 대형 여행사 토마스코크그룹, 라이언에어홀딩스, 브리티시어어웨이즈 등 관광산업 대표 기업의 주가는 올 들어 20~50% 사이의 낙폭을 기록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야후 핵심사업 잡은 버라이즌, 그래도 먼 '폐북'

인터넷 사업 48억달러에 인수  
AOL과 결합 미디어사업 확대  
온라인 광고 시장 경쟁력 키워  
점유율 5.2% 그쳐 존재감 미미



미국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가 야후의 핵심사업인 인터넷 포털사업을 48억 달러(약 5조5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사는 인수 합병(M&A) 소식을 25일 미국 뉴욕증시 개장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버라이즌이 이번에 인수하게 되는 것은 야후의 인터넷 사업과 함께 일부 부동산 자산이 포함된다.

앞서 야후 핵심사업 인수전에는 버라이즌을 비롯해 모기지 전문업체 퀵론론스, IT 사모펀드인 벡터캐피탈, 통신업체 AT&T와 사모펀드 TPG 등이 응

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버라이즌이 낙찰받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다.

버라이즌이 시가총액 228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기업인 데다 야후의 핵심인 인터넷 사업을 인수한 뒤 작년에 사들인 아메리카온라인(AOL)과 결합해 디지털미디어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체적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버라이즌의 이러한 구상이 실패할 우려가 커지면 야후는 지난해 버라이

즌이 44억 달러에 사들인 인터넷 기업 AOL과 합병해 페이스북, 구글 등과 온라인 광고 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하지만 야후와 버라이즌이 합병한다 해도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이들이 갖는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올해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후와 버라이즌-AOL은 점유

율이 각각 3.4%,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야후는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웹 사업 분야의 선두주자로 손꼽혔다. 닷컴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 회사 시가총액은 한때 1250억 달러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야후의 시가총액은 22일 종가 기준으로 373억6000만 달러로 쪼그라든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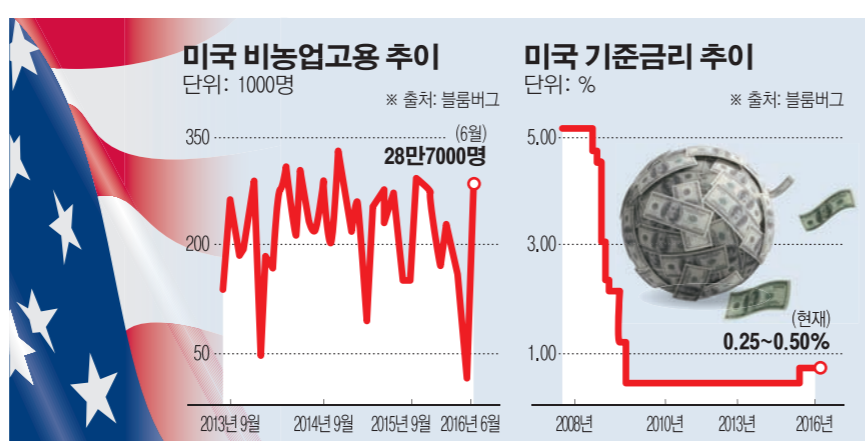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급성장에 밀려 실적 부진을 면화하는 데 실패한 마리아사 메이 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 지분 분사를 시도했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후 주주들의 등쌀에 못 이겨 결국 올해 초 주력 사업인 인터넷 사업을 분사해 매각하고 분사에는 알리바바의 주식 지분 등 비핵심 사업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로써 인터넷 기업으로 시작한 야후는 야후 재팬과 알리바바그룹의 지분을 관리하는 투자회사로 변신하게 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연준, 다시 고개드는 '연내 금리인상론'

26~27일 정례 FOMC 개최  
시장 혼란 진정·지표 개선 등  
가을 이후 인상시점 고민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시 기준금리 인상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연준은 26~27일 이틀간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이달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여파 파악을 위해 연준이 금리인상을 보류할 전망이나 성명은 지표 개선 등을 반영해 다음 금리인상 여지를 열어둘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난달 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면서 글

로브 경제와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그러나 이달 들어 시장 혼란이 진정되고 미국 고용과 물가, 주택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이 가을 이후 인상시점을 고민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

지고 있다.

에선 해리스 밴크오브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다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이전보다 높게 매기고 있다"며 "연방금 금리 선물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9월 인상 가능성을 약 25%

12월은 45%로 점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FOMC 성명이 시장 전망을 실질적으로 바꿀 것 같지는 않다"며 "연준은 여전히 브렉시트 이후 지표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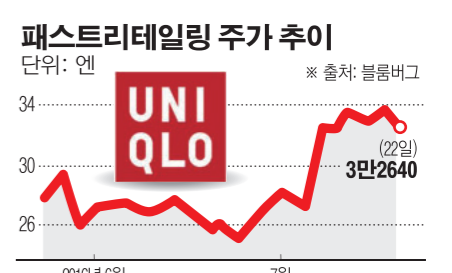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28만7000명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17만5000명 증가를 크게 웃돈 것은 물론 8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6% 늘어나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3% 올라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시장은 29일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비치도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집계에서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연율 2.6%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 분기 1.1%에서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 유니클로, 역시 싸야 잘 팔리네~

지난 2년 가격 인상에 고객 외면  
일 매장 가격 인하로 실적 개선  
주가 7월 중순부터 18% 경증



세계적 국민 캐주얼 브랜드를 지향하는 '유니클로' 운영기업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이 가나인 집체의 늪에서 드디어 벗어날 조짐이다.

지난 14일 유니클로는 2016회계연도 2분기(3~5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1917억 엔(약 2조482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291억 엔이었다고 발표했다.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한때 주가는 상한가를 치기도 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일본 국내 가격을 다시 회사의 모토대로 '매일 저가(everyday low price)'로 회귀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유니클로는 2014년과 2015년에 2년 연속 가격을 5~10% 올리면서 충성도 높은 고객의 이탈을 초래했다. 그동안의 실적 부진은 물론이다. 그러다가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올봄부터 가격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고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가격 인하를 되도록 지양하고, 대신 매일 쇼핑해도 부담 없는 수준으로 가격을 낮췄다. 그러자 유니클로를 떠났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왔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오카자키 다케시 패스트리테일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자회견에서 "매우 잘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 방침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가을-겨울 제품에 대해서도 기존에 가격을 인상한 제품에 원래 가격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니클로의 가치가 330억 달러(약 37조 원)로 아시아에서 최대이며, 세계적으로는 스페인 인디텍스의 자라(1050억 달러), 스웨덴 H&M(500억 달러)에 있는 3위 패스트 패션 업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장기 디플레이션에 고전하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나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발판 삼아 성공한 기업이 초심을 잊었다가 집체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니클로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가도 회복하는 중이다.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7월 중순 이후 회사 주가는 18% 이상 뛰었다.

# 여름휴가?... 하반기 전략 구상 바쁜 재계총수

이재용, 미래먹거리 재편 방안 고민 정몽구, 상반기 판매부진 '좌불안석' 최태원, 통신 중장기전략 다시 짚 판 구분부·권오준 등 여름휴가 만남 글로벌 경제 악재 등 대비 '정중등'



(왼쪽부터 시계 방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분부 LG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국내 주요 기업들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한 가운데, 재계 총수들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 현안 탓에 휴가 계획을 잡지 않거나 가더라도 하반기 전략을 구상하며 휴식을 취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사드 배제 등의 돌발 악재가 불거지는데 경기 전망도 안갯속에서 있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한 휴가 계획을 잡지 않았다. 다만 하반기 경영구상을 위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2-3일간 휴가를 다녀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2년째 병상에 있는 아버지 이경희 회장을 대신해 이 부회장은 그룹의 미래 먹거리 재편 방안을 고민하는 데 한창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5-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샌버너 콘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인사들과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귀국한 후에도 하반기 경영전략 수

립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8월 첫주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경영 전략을 구상하며 조용히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휴식에만 전념하기에는 상반기 판매 부진을 겪은 현대기아차의 상황이 편지 않아서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의 5년 연속 파업까지 그룹 전반을 둘러싼 위기가 만만치 않다. 휴가 계획이 따로 없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하반기 경영전략 구상에 전념한다. 최 회장은 최근 "사업과 조직, 문화 등 기존 SK의 틀을 깨라"며 주력 계열사 CEO들에게 하반기 경영 화두를 던지는 등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래 먹거리로 준비했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도 최종 불허 결정을 받아 무산되면서 그룹 성장의 한 축인 통신 부문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구분부 LG그룹 회장은 특별한 휴가 계획 없이 한남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경영을 구상한다. 구 회장은 최근 그룹 최고경영연에 전자, 화학 등 2개 사업을 축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선제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휴가기간 중에도 책을 읽고 묘안을 짜는 일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휴가 일정을

반납하고 경영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별도의 계획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사격장과 태양광 셀 공장 등을 찾으며 분주한 여름을 보냈으나 휴가 계획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여름휴가를 반납했다.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다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성수기가 여름인 만큼 조 회장은 올해 역시 여름휴가 없이 정상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의 CEO들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휴가를 반납하거나 가족과 휴식을 취하는 정도에 그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휴가 없이 당분간 그룹 현안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CMT(사르트 마리 투스리)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 받고 있어 건강 회복 등 휴식이 절실하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오는 9월 오픈하는 스타필드 하남 때문에 시간은 없지만 미국에서 유학 중인 두 자녀의 방학을 맞아 함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국내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조남호 기자 sprdn@



23일 서울 종로구 중로타워 33층에서 개최된 웅진재단 하계 멘토링 행사에 참가한 멘토 교수들과 재단 수학영재 장학생, 학부모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웅진재단

## 웅진, 수학영재 초청 하계 멘토링 행사

김동률·고경훈 등 영재장학생 참가 웅진재단이 수학영재장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도 하계 멘토링 행사를 열었다. 웅진그룹이 사회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웅진재단(이사장 신현웅)은 23일 서울 종로구 중로타워 33층에서 고교·대학 수학영재 장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10차 장학생 하계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웅진재단은 방학기간 동안 장학생과 학부모를 초청해 각 분야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게 한 후 학문과 진로 등에 대한 조언과 지지를 받게 하는 멘토링 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오세정 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김명환 서울대 수학과 교수와 김도한 한학술원 회원이 멘토로 참여해 특강

과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번 멘토링 행사에는 지난 5일부터 12일간 홍콩과기대에서 열린 제57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출제된 여섯 문제 모두 만점을 기록, 109개국 602명의 참가자 중 1위로 금메달을 따낸 주정훈과 최재원, 은메달을 목에 걸 백승윤이 참석했다. 또 미국 하버드대 수학과에 진학한 김동률, 영국 케임브리지대 수학과에 진학한 고경훈 등 영재 장학생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제2기 웅진예술영재 장학생인 장준희의 클래식 기타 축하연주가 펼쳐진 뒤 김명환 교수가 '수학이란?', 오세정 원장이 '2세기 지식기반(창)의 사회의 미래 인재상'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오찬 뒤에는 김도한 회원이 김동률, 고경훈과 함께 종합토론을 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 '강철나비' 강수진, 마지막 무대를 날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하우스에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오네긴' 공연으로 투수즈를 벗은 강수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종신단원이자 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인 강수진은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오네긴' 공연을 끝으로 30여년 발레리나 인생을 마감했다. 이날 슈투트가르트 오페라 극장을 가득 채운 1400명 관객은 기립 박수와 함께 붉은색 하트가 그려진 '고마워요 수진(Danke, Sue Jin)' 손팻말을 들어올리며 '강철나비'를 떠나 보냈다. 사진제공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 전병성 환경공단 신임이사장 취임

한국환경공단 신임 전병성(사진) 이사장이 25일 취임했다. 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전 이사장은 1955년 1월 충남 예산 출생으로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미국 일리노이대와 건국대 대학원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대 기상청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등을 두루 역임한 환경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이정필 기자 roman@

## 베조스, 버핏 제치고 세계 3위 부호

빌 게이츠 890억 달러로 1위 미국 아마존닷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사진) 최고경영자(CEO)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을 제치고 세계 3위 부호 자리에 올라섰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베조스의 순자산은 21일 시점에 650억5000만 달러(약 74조260억 원)로 버핏을 3200만 달러 웃돌았다. 베조스의 자산은 올 들어 54억 달러가 늘었다. 세계적인 시장 혼란으로 그의 자산은 2월에 430억 달러까지 줄었으나

시 회복한 것이다. 베조스의 순위 상승은 버핏의 자선활동 덕분이기도 하다. 버핏은 매년 빌앤켈린다가게이츠재단에 약 22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 한편, 세계 1, 2위 부호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약 890억 달러)와 스페인 의류업체 인디텍스 창업자인 아만시오 오르테가(약 730억 달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문소리,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에

배우 문소리(사진)가 내달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 제7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오리존티 경쟁부문(Orizzonti competition)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24일 문소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소리가 심사사를 맡게 된 오리존티 경쟁부문에서는 전 세계 혁신적인 경향의 작품이 소개된다"며 "한국배우가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인사

- ◆행정자치부 ◇과장급 정보 △정책평가 담당관 윤동욱 △선거의회과장 정두석 △지방행정연구실 교육2과장 최경아
- ◆국토교통부 △홍보담당관 유삼술 △북한도시정책과장 한성수 △국토정보정책과장 김형석 △지적제도조사기획단 기획관 손우준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정보 및 파견 △세월호인양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이상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서진희
- ◆법제처 ◇과장급 정보 △경제법제국 법제관 김현울
- ◆방위사업청 ◇과장급 임용 △지원장비 사업팀장 신수호
-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신규 △국립 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김성민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김용철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이지원 ◇도원국장 승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현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황수정 ◇과장급 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 서현호 ◇과장급 정보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박교신
- ◆한국은행 ◇국실부장 △정책보좌관 임철재 △공보관 이승현 △기획협력실장 최요철 △규규제도실장 배준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성호 △비서실장 양석준 △국제협력실장 박찬호 △커뮤니케이션국장 하근철 △전산정보국장 김옥중 △인사경영국장 정길영 △재산관리실장 김준기 △경제통계국장 정규일 △금융안정국장 신호순 △통화정책국장 박종석 △금융시장국장 이원석 △국제국장 서봉국 △리턴사무소장 김현기 △총부

- 본부장 양동성 △제주본부장 장현철 △강릉본부장 조규산 △울산본부장 신병근 △강남본부장 박운섭 △조사국 계량모형부장 황상필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김경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 박종열 △금융시장국 자본시장부장 황인선 △금융결제국 결제감시부장 이상열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장 이종렬 △국제국 국제금융부장 이정욱 △외자운용팀 운용지원부장 안성봉 △부산본부 기획조사부장 백승호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 김승원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부장 박성민 △제주본부 기획조사부장 문한근 △이급 승진 및 이동 (승진) △공보관 이승현 △금융시장실장 서영만 △국고증권실장 전태영 △국제국 부국장 이정 △감사실 부실장 노영래 △총부본부장 양동성 △울산본부장 신병근 (이동) △경제교육실 오호일 이급배정영택 △인사경영국 신수용 장택규 △경제연구관 김인섭 △2급 승진 및 이동 (승진) △인재개발팀 배용주 △조사국 김근영 △금융안정국 변성식 △통화정책국 권운준 △발권국 김광명 △리턴사무소 한영철 △외자운용팀 서명국 홍원석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부 박성민 △포항본부 이윤성 △인사경영국 소속 김영석 배성준 (이동) △국제협력실 김창호 △전산정보국 임현국 △인사경영국 운영실 이상봉 △경제통계국 문성민 △금융시장국 김준태 △발권국 정성덕 △울산본부 운영팀 △강남본부 송정식 △3급 승진 및 이동 (승진) △기획협력국 박준민 △금융통화위원회실 오영석 △인사경영국 김진국 △조사국 박종현 △경제통계국 최병오 △회계실 △금융안정국 유성욱 이정현 △금융결제국 김현구 조규현 △발권국 김성규 △국제국 김영주 △외자운용팀 조석방 △경제연구관 최석기 △대구경북본부 정명숙 △인천본부 이주용 △제주본부 백경호 △인사경영국 소속 강득록 (

- 이동) △공보관 고원홍 △기획협력국 최재효 △국제협력실 이강원 △경제교육실 김관철 △전산정보국 김두경 △인사경영국 강광원 △인재개발팀 최진만 △조사국 우준명 △금융시장국 김정현 △금융결제국 김영만 김정규 △국제국 권민수 김원태 △뉴욕사무소 이정현 △리턴사무소 최유현 △외자운용팀 김기훈 △경제연구관 강환구 △감사실 배경태 △북포본부 이일현 △광주전남본부 방만승 △강원본부 강경진 △인천본부 소창수 △제주본부 이재율 △4급 승진 및 이동 (승진) △국제협력실 민지연 △전산정보국 강민구 △경제통계국 김혜림 이광원 최준승 △금융안정국 임영주 차재준 △금융시장국 신영석 △금융결제국 최창호 △외자운용팀 김석창 △부산본부 유재원 윤진영 △광주전남본부 조수영 △대전충남본부 조유리 △총부본부 최병현 △강원본부 이승현 △제주본부 안숙현 △경기본부 조미경 △경남본부 최호식 △포항본부 정진호 (이동) △기획협력국 박현 이태운 최정운 △커뮤니케이션국 한정훈 △전산정보국 김진호 김창록 장성우 △인사경영국 최영순 △인재개발팀 강준구 반진의 홍승택 △조사국 권효성 김민수 김성훈 △경제통계국 김성규 김보성 이성환 △금융안정국 이현영 조한서 △통화정책국 김낙현 김태식 남민호 정재욱 △금융결제국 권나은 배성익 이주연 △국제국 김경민 김기봉 김주연 안상준 유영찬 전재환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안봉주 △외자운용팀 김현철 △부산본부 김진숙 △북포본부 전성범 △대전충남본부 양종철 △강원본부 윤승환 △인사경영국 박기정
- ◆KEB하나은행 (승진) ◇지점장 △홍제동 김원복 △동인천 고창호 △서울동 구희동 △태안 권준순 △사직동양 금융호 △문화동 김기태 △일원역 김대용 △사직동 김봉수 △나주7거리 김세훈 △충주동 김영환 △미아동

- 박성숙 △본리동 박영희 △예산 박원희 △죽전중앙 방재현 △담십리역 서유석 △효자촌 연안자 △송파동 윤문도 △신정동 윤미애 △공평터미널 윤운기 △대전중앙 이동열 △오류동 이병승 △이매동 이선용 △첸나이 이용호 △화양동 이정우 △연신내 이정준 △고척동 이정호 △대구공단 이창근 △안동 임재봉 △삼일리센트 임재용 △신당역 전중섭 △수지동천 정애연 △성남기업센터 조성민 △노은 조흥연 △포동동 최홍길 △사당동 한병철 △화성발안 흥기인 △수유동 황순영 ◇지점장 겸 RM △송도동 GCF 양승진 ◇RM △반월기업센터 강성문 △센텀시티 김인길 △내자동 계명관 △창제동 권홍근 △강성역 기업센터 김기영 △서초역 김봉배 △세종동 김성혁 △메트로자이 김수정 △인사동 김영준 △강서 김인철 △방배동 김재호 △방이동 김진순 △장안중앙 김종욱 △코엑스 김종홍 △초량역 태민 △광주 김민식 △김포대로 김홍영 △관동 김문배 △삼삼타운 박말봉 △야차산역 박미옥 △도곡역 박상열 △창동중앙 박성진 △광화문역 박승용 △계동 박재수 △현대모터 금융센터 박주용 △소공동 박창 △마포 배상오 △시화기업센터 배운식 △일산 배승익 △대전 소당역 이인희 송병석 △노원역 신인규 △한성대역 안영수 △부산 안성원 △노원역 안성태 △화곡 인신업 △양재동 인창환 △상무역 △노원역 양철진 △창명역 유병삼 △용인 유수동 △구로 운동환 △서초동 윤인섭 △삼삼센터 이강근 △양정동 이경란 △남기과동 이관수 △SK센터 이남진 △평촌 이문호 △신촌 이미선 △의정부 이상현 △하남 이석 △역삼동 이선기 △아탑동 이용호 △평촌스마트 이원근 △계동 이윤구 △충주 이응석 △서현금융센터 이재석 △서대문 이주희 △둔촌역 이진권 △인사동 이찬용 △공평로 이준범 △역삼중앙 이현미 △수성동 이현

- 직 △판교 이현철 △무역센터 이형진 △창주 임병진 △창원기업센터 임항미 △압구정중앙 장성준 △본당중앙 장준영 △구로디지털단지 전병우 △신길 정서현 △녹산공단 정순부 △파주 정재두 △대전금융센터 정진수 △서울아산병원 정진실 △여의도금융센터 조강환 △잠실역 조남도 △잠원역 조병영 △삼공회소 조병현 △청라역 조은아 △법정지광호 △성남북 진영규 △신사동 천명성 △화성발안 최관은 △무교 최원호 △시화공단 최지연 △범계역 한일석 △삼성역 한재영 △선릉역 함진식 △강남금융센터 허근 △강남역 황기성 △화곡역 황지환 △신계중앙 황태우 ◇GOLD PB △도곡PB센터 김현주 △서암구정 송혜영 △대치동 이서아 △여의도 이태훈 ◇수석 PB △한남중앙 김경희 △구미 백영미 ◇VIP PB △해운대동백 바구서 △동소문 박은정 △주요역 박일규 △반포중앙 박일순 △이매 박현주 △잠원역 서승호 △선주역 안경희 △테헤란로 정연우 △서초수퍼빌 최홍숙 △신방동 홍경희 (전보) ◇RM △반포동 고충렬 △의정부 김철 △화정역 김태준 △마두역 박병휘 △이매 박태연 △을지로 신동호 △수내동 오연근 △신설동 윤승호 △트계로 임현석 △군자동 장우진 △주안공단 정형석 △여의도금융센터 정원선 △남동기업센터 홍성하
- ◆서대문 △교육부총장 및 대학원장 박찬욱 △연구부총장 신혜영 △기획부총장 황인규 △기초교육원장 이재영 △교무처장 김기현 △학생처장 이준호 △연구처장 김성철 △기획처장 이관권 △인문학본부장 안현기 △국제협력본부장 이근 △정보보호본부장 박세용 △기초교육원 부원장 허원기 △교무부처장 및 교육부처장 이용무 △학생부처장 이우리 △연구부처장 오정미 △기획부처장 오현석 △협력부처장 한규섭 △국제협력본부 부부

- 부장 구민교 △정보보호본부 부본부장 윤운태
- ◆조선영상비전 △영상취재부장 이재이
- ◆태일리스포츠한국 △평점국장 직대 손시권 △총괄팀장부장(부국장) 김형환 △광고국장 박범주 △제작국장 한봉찬 △판매국장 우승필 △관리국장 이재영
- ◆전자신문 (승진) △전국부 부국장 직무대리 김순기 △통신방송산업부장 김원배 (전보) △미디어인쇄국장 조희광 △광고마케팅국 지원팀 부국장 강병주
- ◆부음
- ◆장명성(전 서울은행 전무이사)씨 별세, 장기영(전 한국토지공사 지사장)·기상(미국 거주)씨 부친상. 이우철(전 외환은행 본부장)·채수형(전 경수증권 근무)·신성문(전자통신연구원 근무)씨 장인상 =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2-3010-2262
- ◆김지홍(전 프로농구 SK 코치)씨 수원대 감독)씨 부친상 = 24일,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032-571-1326
- ◆성락문(전 한국전력 고리원자력발전소 처장)씨 별세, 성미숙(에코트론스 대표이사)·재기(에코트론스 영업본부장)씨 부친상. 김영학(연대중급 트레이닝시스템부장)·김용배(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씨 장인상 = 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2-3410-3151
- ◆이중훈(우드버리 대표)·인상(연리지 대표)·은임(아모레퍼시픽 상무)·은숙(헤라아카데미 대표)씨 부친상. 박용준(프리미엄 대표)·손명호(국립수안과학원 근무)씨 장인상 = 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2-3410-6917
- ◆김정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씨 부친상 = 24일, 경북 예천농협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9시, 054-655-0990

연재소설

한만수 작 사유진 畵

# 서울 25시, 夜

## 제2화 그녀는 분식회계 중 ㉞

“이해진 씨 어디 있나?”  
 “해진이요?”  
 부장이 대뜸 물어보는 말에 박 과장이 이해진과 같이 있을 때처럼 반문했다.  
 “해진이라니? 이해진 씨가 박 과장 딸이야?”  
 “따, 딸이라뇨? 이해진은 왜 찾으십니까?”  
 박 과장은 부장이 오늘 따라 이해진을 끔찍하게 위한다고 생각하며 반문했다.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1시 30분에 비서실장님이 변담하시겠다고.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갔나? 구내식당에는 없다고 하던데?”  
 “그, 그게 말입니다. 몸이 아파서 조퇴를 했습니다.”  
 “뭐! 조퇴? 그걸 왜 이제 보고하는 거야?”  
 “지금 막 보고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셨을 때 조퇴했습니다.”  
 “많이 아픈가?”  
 “병원에 갈 정도로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 이걸 어쩌지?”  
 부장이 연신 짐을 삼키면서 굳은 얼굴로 박 과장을 바라봤다.  
 “비서실장님께서 왜 찾으십니까?”  
 “비서실 직원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이해진 씨를 비서실로 발령 내려야 봐.”

구.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잖아.”  
 부장은 하는 수 없다는 얼굴로 구내전화기를 들었다. 박 과장은 짐을 삼키며 부장을 지켜봤다.  
 “내일은 출근할 수 있지?”  
 부장은 수화기를 들고 의자를 돌려 앉았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굽실거리며 통화를 했다.  
 “네, 출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과장은 오늘 저녁에 만나서 세뇌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리 앞으로 갔다. 기다렸다는 듯이 스마트폰이 울렸다.  
 “과장님, 저 회사에 들어갈 기분이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부장님께 잘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아도 내가 부장님께 말씀드려서 내일로 미뤄줬든, 몸은 좀 어때?”  
 “저녁에 오피스텔로 오실 수 있죠?”  
 “가능한 한 일찍 갈게.”  
 박 과장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아프다니까 걱정스럽고, 비서실로 발령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쪽 아픈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이해진이 비서실로 발령 날 것이라는 소문은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매머드급 태풍으로 남



“인사절도 아닌데요?”  
 “비서실이 어디야? 청와대 같은 곳인데 무슨 인사절을 따져? 급하니까 빨리 수배해 봐.”  
 “일단 제가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박 과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해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걱정이 됐다.  
 이해진이 아픈 것은 걱정이지만 비서실로 발령 난다는 점이 더 고민이다. 비서실에는 능력 있고 절성기 놓들도 많다. 한마디로 자금부 총각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뿐인가 이해진의 동선을 알 수 없으니까 지금처럼 자유롭게 만날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전화 안 받아?”  
 “네, 병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 과장은 부장이 재촉하는 말에 이해진에게 전화 좀 받으라고 카톡을 보냈다. 그것만으로 안심이 되지 않아서 다시 전화번호를 눌렀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슬그머니 불안감이 밀려온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이 없다. 대전 집에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는 이해진이다. 뒤통수가 간질간질하다. 부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부장님, 만약 못 들어온다면 어쩌죠? 제가 아까 볼 때는 많이 아프던 것 같더라고요.”  
 “기만 있어 봐. 내가 비서실에 전화해 볼게. 이해진 씨가 비서실로 올라가면 우리도 영광이라

자 직원들, 그중에서도 총각 직원들을 강타했다. 이해진에게 은근히 매수 주문을 하고 있던 총각 직원들은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로 이 비보(悲報)를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타전했다. 딱 거기까지다. 백여 통의 답신을 받고 나니 까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쟁판에 혼자 던져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앞으로 봐도 적, 뒤로 봐도 적, 옆으로 봐도 경계 서린 눈빛들이 칼을 갈고 있다. 화장실에 가다 복도에서 만난 농도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빼주면서 정보를 입수하려고 온갖 감언이설을 남발하고 있다.  
 게이투자자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정보를 주위들을 뿐이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면 단합을 해서 폭락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기 시작한다. 게이투자자들이 영원히 게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맹점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를 혼자 독식하다 독박을 쓰면 은팔찌를 차고 정부에서 주는 밥을 먹지만, 정보를 공유하다 독박을 쓰게 되면 세계적 경제 흐름이 하락하고 있음이다.  
 이해진이 자금부에 있을 때 자금부 총각 직원들은 기관투자자였지만 지금은 게이투자자로 전략해 버렸다.  
 이해진이 비서실로 올라가면 더는 자금부 여직원인 아니다. 지금까지는 비성장주였지만 당당히 성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초우량주로 성장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매수를 한다면 그야말로 대박을 친다는 결론이다.

## 세계는 지금



김승웅 언론인·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대형 테러사건을 추적해온 미국과 유럽 언론의 기사 스타일이 지난 14일 프랑스혁명 기념일, 지중해 휴양도시 니스에서 터진 트럭 테러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일간지들이 예전처럼 현장에서 사살된 프랑스 운전사 모하메드 라후에유 브렐(31)의 출신지인 튀니지에 았다튀 기자를 특파, 범인의 소년 시절이나 프랑스에 이민 온 사연을 대서특필할 범하건만, 그런 속보 경쟁에 나선 신문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일간지뿐만이 아닙니다. 일간지의 속보경쟁에 으레 심층보도로 맞서는 근착(近著) 시사주간지 타임이나 뉴스위크, 이코노미스트의 어디를 뒤져봐도 니스 테러 관련 속보는 한 토막도 찾을 수 없습니다. 속보를 대신할, 아니 오히려 그 속보를 훨씬 능가할 새로운 스타일의 기사 접근법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니스의 트럭 테러 이후 신문이나 방송마다 약속이나 한 듯 머리기사로 달고 나오는 뉴스의 제목은 ‘테러의 심리학’, ‘테러리스트의 심리학’, ‘테러리스트가 된 동기’ 또는 ‘테러리즘의 정치학’입니다.

또 하나의 언론 변화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 언론들이 조심스레 다루는 특정 종교와 테러와의 연루가 이번 니스의 트럭 테러를 계기로 공론화되어, 위 네 가지 제목 가운데 하나를 빌려 올리는 기사 거개가 테러의 주범으로 무슬림을 대놓고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229만 부를 찍는 미 최대 부수의 일간지 USA투데이가 니스의 트럭 테러 발생 다음 날인 7월 15일 미 여론조사기관 Few가 미국 내 거주하는 성인 무슬림(회교도) 180만 명의 성향을 조사해 보도한 내용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살폭파범들이 민간인에 대해 저지르는 테러는 정당화되는가?”라는 질문에 86%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나머지 14% 중 7%가 ‘이따금 정당화된다’, 1%는 ‘자주 정당화된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에 살고 있는 10만 명의 무슬림은 그들의 종교 이름으로 자살폭탄 투척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수치를 지구상에 살고 있는 16억 명의 무슬림에 확대 적용하면 1억 명의 이슬람 자살폭파범

# 태동하는 ‘테러리즘 정치학’

들이 이따금 또는 수시로 자살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선다.”  
 이 신문은 이번 Few 조사 내용에 대한 윌리엄 클라크 전 보스턴대 종교학과 교수가 내리는 진단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슬림들이 당신과는 전혀 상이한 가치 기준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 예로 파키스탄이나 이집트에 살고 있는 무슬림의 82%는 지금도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고, 절도범의 손을 자르고, 배교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살고 있다.”  
 올해로 지령(誌齡) 170년이 되는 미 월간지 ‘사인티픽 아메리칸’ 최신호에 따르면 서기 2000년 한 해 3329명에 불과했던 테러 관련 사망자 수가 21세기 들어 10배로 경증 뒤어 2014년 한 해에 3만2685명으로 폭증했고, 2013년부터 2014년 1년 사이에만 80%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테러리즘에 관한 역사적 고찰도 병행돼, 기원전 68년 로마 항구도시 오스티아(Ostia)시가 지금의 북 에레공화군(Irish Republican Army)이나 PLO와 유사한 일단의 암살단에 의해 불바다로 바뀌고, 두 명의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이들에 의해 납치된 사례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 IS 테러 대원의 심리’라는 책을 낸 미국 인

참수에 참여하는 극렬분자가 갖춰야 할 몇몇 자격과 요건에 관해서도 소상히 밝혀져 있습니다. 영국 리즈(Leeds)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심리학 교수 스티브 테일러 박사는 타인에 대해 누구나 갖기 마련인 동정심이나 이해심과의 결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니스 트럭 테러의 현장 국가인 프랑스는 어떤가.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코란을 손에서 떼지 않았던 무슬림이었던(아래 기사 참조), 이 나라야말로 여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외래문화나 종교에 가장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IS 극렬분자들의 침투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등식도 성립합니다. 그 이유는 이민자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데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교육이 타 유럽국 이민자보다 월등히 처진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컨대 미국 이민자의 경우 한 세대(30년), 유럽 이민자의 경우 3세대가 지나면 정착이 가능하나 프랑스 이민자만은 3세대가 지나도 개선은 커녕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해 그 정도가 타 지역 이민자의 5-19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이슬람 분포는 공식적으로는 7-8%에 불과하나, 이런 기회 박탈로 인해 18-24세의 프랑스 청년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이미 IS 테러에 대



니스 테러 이후 변한 서방 언론들의 보도 무슬림 대놓고 거론 교전 당사국 다루듯...

프랑스혁명 기념일인 14일 지중해 해안도시 니스에서 트럭 테러가 발생, 84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부상했다. 참사 현장에서 두 명의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니스/AP뉴시스

류학자 스캇 아틀란이 소개하는 IS의 테러리스트 모방 과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동부 지중해 연안 출신 테러분자들 거개가 초졸 수준에 종교보다는 잔인성으로 무장된 반면, 유럽 내륙에서 모집한 테러분자들의 경우 우정(友誼)과 종교, 이상주의로 무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국은 어떤가. 지금까지 500여 명의 영국인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잠입, 극렬 테러단체인 지하드(聖戰) 대원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 전역을 경악과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은 일명 ‘지하드 존’으로 불려온 극렬분자가 2014년 9월 제임스 폴리스와 스티브 소트로프 등 미국인 기자 두 명을 연쇄 참수하는 과정에서 런던 액센트를 사용, 이 사실을 영국 언론이 공개해 그가 바로 아랍계 영국인임을 밝혀내면서부터입니다.

한 동조차, 그것도 적극 동조자로 바뀐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니스의 트럭 테러를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과 서구 언론이 보인 이 같은 스타일의 변화는 결코 취재보도의 낙후와는 무관한, 오히려 진보적이고 거시적 접근이라는 소화가 듭니다. 니스 테러범인 한 무슬림 운전자의 소년 시절이나 프랑스 이민 경위나 캐는 기존의 미시적 취재로는 이슬람이라는 매머드급 조직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교전 당사국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전선에 임한 미군 장병들의 중훈(中訓) 자료로 미국 정부가 태평연 전정 중년(1944년) 당시 컬럼비아대학 인류학 교수의 루스 베네틱트에게 ‘국화와 칼’이라는 명저의 집필을 의뢰한 것과 유사한 접근이 때때로 일어났습니다. 이번 테러 취재의 스타일 변화를 기해 일본 지리가 무슬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 이집트 원정 때 코란 탐독한 나폴레옹, 그도 무슬림이었다

나폴레옹이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 대신 굳이 무슬림으로 바뀐 이유나 그 시점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평정으로 일약 전국적 인물로 바뀐 그가 이집트 원정에 올라 그의 원정함대가 일렉산드리아(港)에 닿을 즈음, 그가 선상에서 6주간 탐독했던 책이 코란이었다는 사실은 영국의 역사 작가 빈센트 크로닌이 남긴 ‘나폴레옹’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카디스(무슬림 법관), 슈크(족장), 이맘(회교)들을 모아 놓고 선포한 첫 포고령은 “내가 진정한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너희 국민들에게 고하라!”였고, 그 대가로 프랑스군 주둔지여 부근에 돌레 1.5

마일 크기의 모스크(회교사원)를 짓겠노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이집트 종교지도자들이 나폴레옹에게 무슬림이 되는 징표로 할레와(포도주)의 금주를 요청하자 그는 잠시 주춤했으나 곧이어 타협이 이뤄집니다. 그가 향후 이슬람교를 적극 보호하고, 알라 신의 메신저와 선지자(모하메드)의 친구가 되겠다는 선언을 채택했고, 그는 실제로 유럽 전역에서 벌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영광을 알라신에게 돌림으로써 이 선언을 준수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훗날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이 대관식에서 교황이 씌워주는 왕관을 거부, 자신의



나폴레옹이 황제 취임 대관식에서 자신이 직접 왕관을 쓰는 모습. 이 작품은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으로 현재 파리 루브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손으로 직접 받아 쓴 대목에 대한 해석은 달라져야 합니다. 교황의 왕관을 거부한 이유가 나폴레옹의 권위나 오만 때문이 아니라, 당시 이미 독실한 무슬림으로 바뀌어 있던 그에게 교황의 권위는 무슬림 교리상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OVERSTORY 손주 병법, 꽃보다 손주로 살맛 나는 사람들**

PART1. 육아 일기 쓰는 할아버지 (해피의 육아일기) 저자 이창식  
 PART2. 문화가 변해도 손주 돌봄은 역시 격려와 인정이 최고 장영희 동년74자  
 PART3. 대한민국 조부모의 손주 병법  
 PART4. '초등학교 사베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함께 놀아요!  
 PART5. 신종플루는 아니었지만 되살아난 내 보물 손녀 백와성 동년74자  
 PART6.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병법 남진우 뉴욕 주재74자  
 PART7.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의 '독특한' 손주 사랑법 이태문 동경 통신원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선라보가 만난 사람**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산다”  
 ‘꽃’시인 나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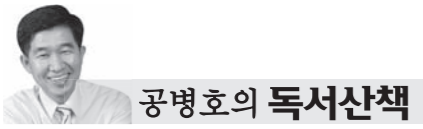
“시니어를 위한 연극은 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죽음이 알려주는 삶의 가치와 행복 법의학자 문국진 박사

**7월의 맛 닭다리 잡고, 무더위도 잡자**

초복부터 말복까지를 더위가 가장 심한 때라 하여 ‘삼복 더위’라고 한다. 예로부터 복날이면 여름내 지친 몸과 기운을 달래기 위해 보양식을 챙겨 먹었다. 해마다 먹던 삼계탕과 백숙이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이번 복날엔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색다른 건강식과 옛 물건들이 가득한 ‘솔로렘’을 소개한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공병호의 독서산책

최연혁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바로 좋은 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 최연혁 소장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공공사)'는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해온 사람의 조언서이다. 이 책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국가의 부침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의 해박함으로부터 우리는 풍부한 역사적 사례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책에 이런 문장이 있다. "국가 간의 경쟁은 항상 상대적 국력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한 국가의 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경쟁 국가가 더 빨리 발전하면 뒤처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이다.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도

다. 그러나 저자는 이들 모든 요인을 총괄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을 밝힌다. 강대국으로 성장하거나 주변국으로 쇠퇴한 국가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새로운 인재의 영입과 유출'이다. 설득력이 있는 지적이다. 현재는 힘들더라도 좋은 나라로 나아가는 국가라면 인재 유입하는 힘이 클 것이다. 거대한 벽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판단이 서면, 인재가 유출될 것이다. 역사는 예외 없이 인재 유출을 경험한 국가들의 쇠락을 보여주고 있다. 1600년대 스페인의 몰락에는 2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과 25만 명 정도의 무어인 추방이 있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17세기 루이14세가 주도한 위그노인의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기술 혁신과 시장 효율의 융합으로 기업은 성장과 이익을 내게 된다. 기업 이익 창출의 본질은 혁신과 효율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진 차별화다. 남들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은 차별화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익이 혁신과 효율에서 어떻게 창출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효율을 통해서 우리는 원가절감이라는 차별화를 이룩하게 된다. 추격자 전략은 저임금, 수직적 통합, 대규모 수출 시장이라는 3대 원가절감 전략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수직적 통합으로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 됐다.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전자는 부품에서 완제품 생산까지의 수직 통합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 애플은 부품과 제품 생산을 일체화하지 않고 있다. 삼성의 전략이 수직 통합의 원가절감이 있다면 애플의 전략은 혁신 위주의 가치 창출이다. 규모 경제의 효율 차별화는 대체로 매출액의 5%를 넘기 어렵다. 대한민국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다. 반면에 혁신에 의한 차별화는 대단히 크다. 새로운 스마트폰 생태계, 에어비앤비(Airbnb),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을 통한 가치창출은 제한이 없다.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대체로 30%를 육박하고 있다. 우리는 추격자 전략의 일등 국가로서 원가 절감과 효율의 패러다임에 익숙하다. 열심히 일사불란하게 갑을 관계 하에 일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혁신은 효율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다. 이제 실패를 감수해야 하고 갑을 관계의 지시가 아니라 수평 관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고, 봄이 되면 봄 옷을 입어야 한다. 이제 추격자 전략의 겨울 옷을 벗고 개척자 전략의 봄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아직도 겨울 옷의 무게가 우리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1차 한강의 기적의 성공 방식이 지금 한국의 족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갑을 관계, 사전 규제, 실패에 대한 징벌, 일사불란한 조직, 정답의 신봉주의, 정부 후견주의와 규제 등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열심히 뛰는 효율의 차별화는 대략 5%인데 반해, 혁신의 차별화는 무한대로도 갈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의 열매는 달콤하나 혁신의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혁신은 탄생한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에서 혁신의 꽃은 피지 않는다. 국가는 혁신을 요구하나 개별 혁신기업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숙명을 만든 것은 실패에

혁신과 효율, 그리고 기업의 이익

대한 과도한 징벌이었다. 이러한 혁신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은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혁신은 개방과 융합을 먹고 자라나, 우리는 폐쇄된 개별 경쟁에 치우치고 있다. 혁신의 열매를 따는 과정은 가혹하다. 열매를 지키는 과정도 쉽지 않다. 혁신의 과도한 수익은 수많은 후발업체를 유인하는 등불이 되어 죽음을 각오한 나방들이 달려드는 레드오션화한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과도한 수익을 일부러 자제하기도 한다. 혁신의 차별화 시작은 지식재산권이다. 특정산업용 제외하고는 노하우에 비밀 영수가 어려워지고 있다. 메타 기술의 발달로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 지식재산권 보호 없이는 혁신이 보호받기 어렵다. 혁신 차별화의 다음 단계는 혁신의 속도다. 구글과 아마존이 핵심 알고리즘을 오픈소스화하는 것은 속도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특화는 보유하고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로 생태계를 이끌어 가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시장 차별화의 본질은 규모다. 규모의 경제는 어디에서나 작용된다. 제품은 판매량이 두 배 늘 때 원가는 10% 줄어든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두 배 늘 때 원가는 10%가 아니라 50%까지 감소한다. 결국 시장 규모가 효율 차별화의 핵심 요소다. 따라서 혁신이 만든 지식재산권과 시장이 만든 고객관계, 이 두 가지가 순환하면서 지속 가능한 차별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의 모습이다.

인재가 모이는 곳에 미래가 있다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일격을 당해 쓰러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시간을 흘려보내 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영국은 발 빠르게 변신하지만 러시아 왕실과 귀족들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대한 요구에 눈을 감는다. 이후 크림전쟁의 패배, 러일전쟁의 패배, 그리고 러시아제국의 몰락과 공산주의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환경이 급변하면 반드시 국가 차원의 개혁에 성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로 교육개혁을 든다. "핀란드 교육을 살펴보고 돌아온 수많은 교육자들이 좌절하는 것은 탁아소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계의 전반적 개혁이 없는 한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세계 되기 때문이다." 흔히 국가 흥망성쇠의 요인으로 산업혁명, 경제성장, 신무기와 전술의 현대화, 인구, 정선력, 질병 등이 국력의 지표로 사용된

경제 축출이다. 종교 박해로도 2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지로 나갔으며, 이들이 정착한 개신교 국가는 상대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 인재가 모이는 곳에 미래가 있다. 유로존의 위기로 청년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대졸 청년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나라를 등지고 있다. 결국 어떤 사회의 미래를 전망할 때는, 그 사회가 강력한 인재 유입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를 봐야 한다. 현재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국가 만족도도 중요하다. 특히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매력은 도시 경쟁력이다. 암스테르담과 제네바와 같은 도시는 일찍부터 종교적 자유, 정치적 자유를 유인적으로 해외로부터 많은 인재를 받아들여왔다. 저자는 결론에서 앞으로 선도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책임 국가, 안전국가 그리고 행복국가라고 주장한다. 결론보다는 역사적 부침을 다룬 내용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오늘의 인물 7월 25일 김한기

김한기는 1913년 2월 27일 태어나 1974년 7월 25일 타계한 한국 대표 추상화가다. 그는 "점, 선, 면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말한 화가"(미술평론가 임정섭의 저서 '꿈을 그린 추상화가 김한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신안이 고향인 그는 일본 나혼(日本)대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홍익대 미대 교수를 지냈다. 1954년에는 예술원 회원이 됐고 여러 번 국전 심사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는 도쿄에서 개인전을 열고, 한국의 '신사실파전(新寫實派展)'에 출품했다. 1956년 프랑스로 가서 1957년까지 파

한국 화가 경매 최고 낙찰가 자랑하는 서양화가

리, 니스, 브뤼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959년 귀국한 뒤 1963년 '제7회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 한국 대표로 참가해 명예상을 받았다. 또 1970년 한국일보사가 주최한 '한국미술대상전'에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대상을 받았다. 1964년부터는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2015년에는 1971년 작 '19-VII-71#209'가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3100만 홍콩달러(약 47억2100만 원)에 낙찰돼 한국 화가 경매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초기엔 기하학적 추상에서 점차 동양적 관조와 아취(雅趣)를 근간으로 한 반추

카드로 보는 세상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이 인체에 유해한 '에탄올 워셔액'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뜨겁습니다. 적은 양만 섭취해도 신경장애나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물질이라는 사실에 새삼 워셔액 공포증이 일기도 했죠. 수출용에는 상대적으로 무해한 '에탄올 워셔액'을 쓴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에탄올 워셔액'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에탄올 워셔액 만드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mFyQCN>

사이버 학교폭력 3년 새 1.6배 증가 "SNS 왕따가 더 무서워"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학교 폭력의 양상도 과거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건수는 2012년 2만4709건에서 지난해 1만9968건으로 3년 새 19.1% 감소했다. 그러나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 1462건으로 3년 만에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톡폭력, '떼개', '방폭' 등의 사이버 폭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은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왕따가 더 무서울 수 있다", "폭력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 같다", "학생들이 SNS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수현 기자 int1000@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알에스스포츠 TEL. (02)3280-9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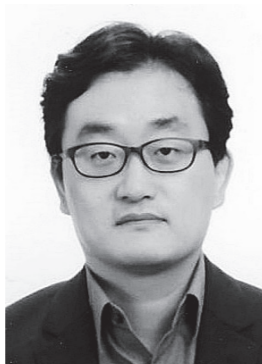
正論

대법관 구성에 관한 짧은 생각

안철우의 지금 여기

산업1부 차장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나, 법관만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유주의 정치체제가 법의 '중립성'을 전제하고, 법을 해석·적용하는 재판도 모든 정치적인 관점에서 자유로운 중립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중립적이고, 재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정치는 재화와 책임의 정의로운 배분을 그 본질로 하고, 재판은 무엇이 재화와 책임의 정의로운 배분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기에 '정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처럼 자유주의 정치체제에서 법은 '정치'이고, 사법부는 그 법을 해석·적용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준다. 법원에서 담당하는 개개의 재판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이다. 그러한 다툼에 대한 판결이 모여 국가의 법 질서를 형성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최고법원이란 단순히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동체 내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기관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서 연방대법관의 명칭을 'JUSTICE'라고 하는 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법원은 대법원이고, 대법원은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된 대법관은 그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정의'를 정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다. 따라서 대법관을 누구로 임명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적인 대사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은 9월 취임할 대법관으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번 제청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게 생각하는 점은 서울 법대, 50대, 남자라는 대법관 임명의 전통 공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인사였다는 것이다. 전북 임실이 고향인

교수 출신으로서 지역과 직역을 감안한 인사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는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아쉬운 점은 이번 대법관 제청으로 인해 대법원의 보수적인 경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대법관의 판결 성향에 관한 신문기사는 이번에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을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으로 꼽았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중도 보수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이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인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은 현재 대법관 구성에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대법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임명 제청된 김재형 교수는 일반적으로 온건 보수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대법관 성향의 다양화에도 아무런 기여를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대법관 구성 및 성향의 다양화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슷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비슷한 경험과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보다는 다양한 경력과 경험 및 성향을 가진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의 스펙트럼이 넓을 것은 당연할 것이고, 참여하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동질적인 집단의 결정이 빠질 수 있는 오류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법관 구성 및 성향의 다양화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고, 앞으로 국회 등의 절차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심도 깊고 건전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서별관회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추경안 처리를 계기로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논란이 다시 토박이 됐다. 지난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재직 당시 "나는 허수아비였던 회의"라고 밝혀, 밀실 행정의 적절성과 책임성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왔다.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는 밀실 금융행정의 대표적 인 회의체로, 시장 논리보다 관치(官治)를 우선으로 정책을 결정해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과거 대우차-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빅딜, 제일은행 등 은행 구조조정, 2000년대 초반의 카드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 방안,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계부채 해결 방안 등 수많은 현안이 이 회의에서 결정됐다.

사실 서별관회의의 밀실의 적폐가 이슈화된 건 3년 전이다. 2013년 당시 자유한국당(FTA),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 방안,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계부채 해결 방안 등 수많은 현안이 이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들 종합하면 서별관회의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밀실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로 압축된다. 만일 올바른 결정이 나온다면 존재를 떠나 서별관회의의, 동별관회의의 어떤가.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서별관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공식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법적 근거 없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서별관회의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한 적이 있다.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부실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기록이 없다고 말하는 지금의 모습과 상반된다.

현재 서별관회의는 6월 6일 이후 홍기택 전 회장 인터뷰 파문을 계기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없애라'와 '안 된다'는 서별관회의를 둘러싼 존재 논란에 언제 가동될지 장담할 수 없다. 비밀주의와 폐쇄성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오해만을 불러일으키는 서별관회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acw@

이들 종합하면 서별관회의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밀실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로 압축된다. 만일 올바른 결정이 나온다면 존재를 떠나 서별관회의의, 동별관회의의 어떤가.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서별관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공식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법적 근거 없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서별관회의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한 적이 있다.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부실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기록이 없다고 말하는 지금의 모습과 상반된다.

현재 서별관회의는 6월 6일 이후 홍기택 전 회장 인터뷰 파문을 계기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없애라'와 '안 된다'는 서별관회의를 둘러싼 존재 논란에 언제 가동될지 장담할 수 없다. 비밀주의와 폐쇄성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오해만을 불러일으키는 서별관회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acw@

김중현 국회의원 황희 보좌관 국민 혜택 가로막는 국토부장관

코레일 사장이 필수 할인제도 변경으로 국민 혜택이 줄어들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말리는 옷지 못할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기업이다. 춘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ITX 청춘 열차 요금도 다음 달 1일이면 요금 이 사실상 인상되는데, 코레일의 변칙적인 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코레일을 대상으로 "공공성 확대를 위해 변경했다던 할인제도가 오히려 700억 원의 국민 혜택을 줄였다"고 주장하자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국민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할인제도를 변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홍 사장의 답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경영 개선이 우선"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코레일은 할인제도를 변경하면서 공익적 목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ITX처럼 할인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만 봐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전반에 당초 시민들에게 알린 것과는 반대로 자신들의 적자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상황을 무시한 채 "공기업 부채를 절감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절망했을 것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모를 리 없는 관련 부처 수장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기관장의 발언을 가로막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기"해 보길 바란다.

코레일은 최근 이미 흑자로 돌아선 공

서지희 금융시장부/ihseo@ 비자 수수료 인상 대응, 말로만?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한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다. 이쯤되니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소비자단체들의 목소리가 허공 속 메아리만 느껴진다.

장은 비자카드에 대한 항의 표시로 비자카드 고위자문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하는 카드업계의 자세는 단호했다. 결국, 이때 비자카드는 수수료율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여신협회와 8개 카드는 21일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신협회와 카드업계의 대응은 소극적으로 보인다. 공정위 제소, 비자카드 본사 방문 계획은 비자가 수수료 인상 철회 계획이 없음을 재차 밝혔던 7월 초에 이미 정해진 내용이다. 한 달이 가까워진 시점에 공정위 제소 일정도, 미국 본사 방문 일정도 구체화하지 못한 대응 자세를 보면 의아할 뿐이다.

이날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위한 법무법인 계약 성사, 미국 비자 본사 방문을 확정했다. 다만, 공정위 제소나 비자 본사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최초 통보한 지 3개월이 다 된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책 하나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정해지는 대로 공정위에 제소하겠다", "확정되는 대로 미국 본사에 가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개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카드업계와 여신협회가 공동의 목소리로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에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움직여야 할 때다.

사실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처음은 아니다. 2009년, 비자카드는 수수료율을 1.0%에서 1.2%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전한 바 있다. 당시 비자카드 장형덕 사

Advertisement for the book '영영이별 영이별' by Kim Byul-ah. The ad features a woman's portrait and the book cover. Text includes: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건가요?",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 간 단종과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65년의 처절한 사랑이 김별아의 소설로 다시 태어났다!", "김별아가 썼다. 이제 내 차례다. 낭독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이라는 이름으로 활자와 배우가 만나는 시간. 이 떨림은 무엇일까?"



# 카카오의 힘은 캐릭터... '포켓몬 고' 잡을 도종IP

〈지식재산권〉

## e기업 집중해부 카카오

'카카오톡'은 어떻게 대중에게 파고 들었을까. 포털 2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인수하며 카카오의 사업 영역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카카오톡의 성공이 없었다면 지금의 카카오도 없었다. 카카오톡의 가장 큰 성공 요소는 바로 캐릭터다. '카카오프렌즈'라는 캐릭터가 주는 친근함, 그리고 직관성은 기존 메신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카카오톡이 남녀노소 모두가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로 부상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

이제 카카오프렌즈는 카카오톡이라는 영역을 넘어 카카오의 모든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총횡무진 활약하는 것은 물론이다. 스마트폰 안에서는 이모티콘과 게임 캐릭터로, 오프라인에서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이용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 카카오 역시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캐릭터 활용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모습이다.

◇뽀로로보다 강하다... 브랜드 가치도 커져 = 카카오는 2012년 11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캐릭터를 처음 선보였다. 카카오프렌즈는 기획 당시부터 사람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 탄생했다. 쉽게 말해 남녀노소 누구나 감정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의 첫 시작은 당시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호조' 작가의 손에서 탄생했다. 물론 카카오프렌즈의 첫 작품은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다. '프로도'는 처음에 귀가 풍긋한 모양이었고 외계인과 사과, 굴 캐릭터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캐릭터다. 게다가 사실 카카오가 원했던 캐릭터는 3종에 불과했다. 하지만 카카오를 대표할 만한 캐릭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 이것저것 구상하다 보니 지금의 8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8종의 캐릭터 중 '무지'와 '론'만 세트로 묶은 점에 대해 호조 작가는 "무지의 컬러가 단순하고 희멀게서 포인트로 쿨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탄생한 카카오 캐릭터는 기업의 이미지 가치 상승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했다.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는 '포켓몬 고'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IP(지식재산권)를 뽑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카카오 프렌즈는 37%를

스마트폰 이모티콘· 게임 캐릭터... 팝업스토어 등서 활용효과 톡톡 기업가치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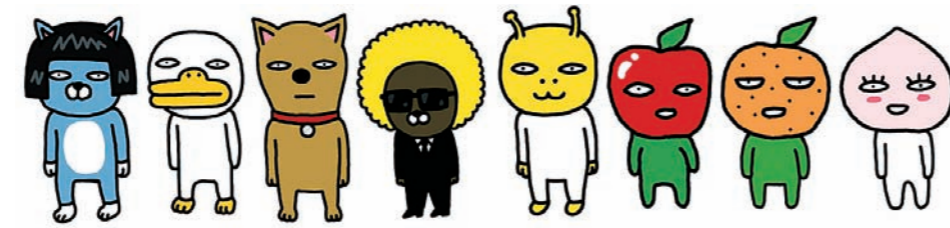
강남 '플래그십' 1000여가지 상품 5월엔 모바일게임 '프렌즈런' 출시 더페이스샵·삼립식품과 콜라보도

기록해 뽀로로(34%), 메이플스토리(21%), 카트라이더(18%), 라바(15%) 등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IP 가치 입증 = 카카오프렌즈의 캐릭터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도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캐릭터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650억 달러로 게임 시장 규모 1299억 달러보다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캐릭터 산업 매출 규모는 총 9조 8000억 원으로 집계돼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프렌즈는 우선 소비자들 사이에서 캐릭터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프렌즈 오프라인 매장은 2014년 10월 신촌점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



카카오 캐릭터 초기 시안.



지난 3일 서울 강남역 카카오프렌즈 첫 플래그십 매장이 시인들로 가득 차 있다. 2일 개장한 강남역 플래그십 매장은 3개 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캐릭터 상품과 생활·패션 소품을 둘러보고 대형 피규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에 17곳의 매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직접 상품을 둘러보고 브랜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역 중심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카카오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이곳은 3층 건물 규모로 전국의 카카오프렌즈 단독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다. 8개의 캐릭터를 담은 약 1000가지의 브랜드 상품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5월에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지난달에는 두타면세점에 입점해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카카오 브랜드를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프렌즈의 캐릭터는 모바일 게임에

서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8월에는 NHN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첫 번째 모바일 게임 '프렌즈팝'을 출시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넥스트플레이어와 함께 '프렌즈런'을 출시해 카카오 캐릭터의 식지 않은 인기를 확인했다.

기존 업체들과의 콜라보레이션도 눈에 띄는 점이다. 카카오는 더페이스샵과 손잡고 올해 초 '더페이스샵X카카오프렌즈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여 대히트를 기록했다. 무지, 어지, 네오, 프로도, 튜브 캐릭터를 적용한 핸드크림 5종은 각각 3만 개의 초도 물량이 완판됐고, 립크림 4종과 선크림, 컨실러, 캐리어 마스크시트도 각각 2만여 개가 완판됐다. 또 최근에는 삼립식품과 함께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빵' 시즌2를 출시했다. 시즌1의 경우 월 500만 봉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카카오가 가진 캐릭터의 가치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까지, IT가 아닌 타 산업 영역까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조성준 기자 tiatio@



더페이스샵의 카카오 캐릭터 콜라보 제품. 사진제공 더페이스샵



서울 서초구 카카오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 매장에 진열된 다양한 캐릭터 상품. 뉴스시스

## 미래 먹거리 O2O 카카오 '돌풍의 핵'

최근 온·오프라인연계(O2O)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카카오가 돌풍의 핵으로 자리잡고 있다. 무수한 O2O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O2O 사업을 무서운 속도로 확대하고 있어서다. 영역도 다양해 향후 국내 O2O 시장 전반을 카카오가 이끌 것이라는 업계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 19일 국내 1위 주문중개 플랫폼 업체인 씨엔티테크에 투자해 지분 20%를 취득했다. 2003년 설립된 씨엔티테크는 미스터피자, BBQ 등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브랜드 80여 개의 주문을 중개해주는 회사다.

카카오가 내세운 이번 지분 투자의 표면적인 이유는 씨엔티테크가 주문중개 영역에서 보여준 인프라·주문결제 시스템 경험을 카카오 모바일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투자가 향후 카카오의 주문 기반 O2O 시장 진출의 첫 걸음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그동안 카카오가 보여준 O2O 시장 확대 영역이 광범위했던 데다, 회사 차원에서 올해 O2O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O2O 분야에서 분기에 1개씩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청사진을 공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출시한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가 성공하자 자신감을 갖고 공격적인 O2O 사업 확대 계획을 공개한 것. 카카오택시는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누적 호출 건수 1억 건을 돌파할 정도로 택시기사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다.

택시·내비·드라이버 등 잇따라 선보여 이달엔 뷰티예약 서비스 '헤어숍' 내놔 하반기 '홈클린'·'주차' 등 출시 계획도 영세 스타트업과 상생, 앞으로의 숙제

이에 힘입어 카카오는 올해 2월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카카오 내비'를 내놔고, 이어 4월엔 시너버스 정보서비스 '카카오 버스'를 출시했다. 지난 5월엔 대리운전 호출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 6월엔 지하철 교통정보 앱 '지하철 내비게이션'을 출시했고, 3월에는 스타트업 투자사인 케이큐브벤처스를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같은 해 5월 발표한 '국민내비 김기사'를 제작·서비스하는 록엔올의 지분 100%를 626억 원에 인수했다. 해 당 M&A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바라본 창업 생태계 모델로 카카오의 록엔올을 인수해 언급하며 큰 화제가 됐다. 인력이나 기술만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거쳐 윈윈하는 투자를 한 것이 배경이다.

올해 역시 굵직한 M&A를 성사시켰다. 지난 3월 카카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원 콘텐츠 서비스 기업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 로엔 지분 76.4%를 1조 8700억 원에 사들인 것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카오페이를 로엔의 음악서비스와 연동해 회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너지를 모색 중이다. 또 한 달 뒤인 4월에는 주차 정보 전문 스타트업인 파킹스퀘어를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카카오는 파킹스퀘어와 함께 올 하반기 중 신규 주차정보 제공 서비스인

이 같은 해 8월에는 자동차 외장수리 견적 비교 서비스 업체인 카닥과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기업인 엔진을 동시에 사들였다. 이 중 엔진은 올해 6월, 카카오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사명을 카카오게임즈로 변경했다. 10월에도 뷰티숍 솔루션 1위 업체인 하시스와 스마트폰 기술력을 보유한 만나씨에이 등 2건의 M&A를 성사시켰다. 한동안 뜸했던 케이벤처그룹은 지난달 비트코인 기반의 필리핀 핀테크벤처기업 SCI의 지분 40%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주범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스타트업들이 카카오를 통해 더 많은 도약의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 끝없는 카카오의 먹성... M&A 성장전략으로 자산 5조 기업 우뚝

키즈노트·지하철 내비·케이큐브... 작년 5월엔 김기사 제작 록엔올 인수 차대통령 '창업생태계 모델'로 언급도 투자전문 자회사 케이벤처 적극 지원 "스타트업 더 많은 도약 기회 생긴 것"

카카오의 인수·합병(M&A) 본능은 어디까지일까. 2006년 설립된 카카오는 11년째에 들어선 지금, 자산규모 5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변신했다. 10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급속한 비결은 M&A를 통한 성장 전략이 제대로 통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투자 전문 자회사 케이벤처그룹 M&A 일지

올해 역시 굵직한 M&A를 성사시켰다. 지난 3월 카카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원 콘텐츠 서비스 기업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 로엔 지분 76.4%를 1조 8700억 원에 사들인 것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카오페이를 로엔의 음악서비스와 연동해 회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너지를 모색 중이다. 또 한 달 뒤인 4월에는 주차 정보 전문 스타트업인 파킹스퀘어를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카카오는 파킹스퀘어와 함께 올 하반기 중 신규 주차정보 제공 서비스인

카카오 파킹을 선보일 계획이다. 카카오의 투자전문 자회사인 케이벤처그룹도 M&A 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케이벤처그룹은 디지털 기기 중고거래 전문기업인 셸트를 인수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전문기업인 탱그램디자인연구소를 인수했다. 소프트웨어와 제품 디자인이 주 사업 영역인 탱그램디자인연구소는 눈앞에 가상현실처럼 보여주는 '출판기 스마트프'를 출시한 바 있다.

한 달 뒤인 7월에는 솔루션 업체인 벨류포션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벨류포션은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내 유료 결제 상황 등을 분석해 결제 유저에게는 더 많은 결제를 유도하고 비결제 유저에게는 광고 노출 확대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김정유 기자 thec98@

# “누가 사먹어” 우습게 보던 물... 30년 만에 7000억 시장

(1988년 첫 등장)

## 유통업계 ‘총성없는 물 전쟁’

바야흐로 물을 사먹는 시대다. 지난 1988년 국내 생수(먹는 샘물)가 처음 등장했으나 당시는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물이 아니었다. 돈을 주고 물을 사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던 시대였다. 당시 등장한 생수는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들을 위해 만든 것이다. 올림픽이 끝난 후 정부는 다시 생수 판매를 금지했다. 빈부 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과 수도물 정책 등이 그 이유였다. 이후 생수 생산업체들의 반발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 1995년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생수가 다시 판매됐다.

이후 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날스코리아에 따르면 2000년대 15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생수시장은 매년 10%가 넘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지난해엔 시장 규모가 6000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700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2020년엔 1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생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음용비용 55%’ 수도물 불신이 생수산업 키워  
연평균 11%씩 성장... 2020년 1조 시장 전망  
‘생수’ 소주·대형마트 매출도 지난해 첫 역전  
제조업체 67곳... 광동 ‘삼다수’ 점유율 45.7%  
롯데 ‘아이스스 8.0’·농심 ‘백산수’ 2위 각축전



광동제약 '제주 삼다수'



농심 '백산수'



롯데칠성음료 '아이스스 8.0'

◇성장의 원동력은 ‘수돗물 불신’ = ‘11%’. 최근 15년간 국내 생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다. 생수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워터저널에 따르면 국내 수도물 음용 비율은 영국(90%), 미국(82%), 일본(78%)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55%에 불과하다. 그중에서 직접 음용률은 3.7%에 그친다.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불인감, 오염 우려 등 심리적 요인(66.9%)이다. 못맛, 이물질 등 직접적인 원인은 2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외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온라인 쇼핑 확산, 1-2인 가구 증가 등도 생수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솔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설탕이나 칼로리가 높은 음료수를 마시기보다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또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의 성장으로 마트에서 무거운 생수를 사들고 집까지 오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클릭 한 번으로 집에서 생수를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생수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1-2인 가구의 경우 물 소비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렌탈 및 구입비용 대비 생수를 사먹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점도 생수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수를 사서 마시는 사람이 늘면서 대형마트에서는 생수 매출이 소주 매출을 넘어이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생수와 소주 함께 매출을 100으로 잡고 각 비중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생수가 50.7%, 소주가 49.3%를 차지해 생수 매출이 소주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소주 매출이 생수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이 같은 추세가 뒤집힌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생수를 사먹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매출 증가의 요인으로 보인다”며 “탄산수, 수입생수 같은 프리미엄 상품이 국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생수 매출을 늘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수 제조업체만 67곳, 삼다수 독보적 1위 = 국내 생수 시장은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터다. 지난해 말 기준 67개 제조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시장에서 광동제약의 ‘제주 삼다수’는 독보적인 1위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제주 삼다수의 점유율은 무려 45.7%에 달한다.

국내 생수 시장은 2위 경쟁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삼다수에 대한 견제가 버거운 상황에서 농심과 롯데칠성음료가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점유율 5.8%로 2위였던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스스 8.0’은 올 1분기에 5.2%로 떨어졌다. 반면 농심 ‘백산수’는 올 1분기 6.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단숨에 2위 자리에 올랐다. 이

어 4.5위는 ‘평창수’(해태음료)와 ‘아이스스’(롯데칠성음료)가 차지하고 있다.

농심은 2012년 광동제약에 삼다수의 유통 사업권을 넘긴 후 백산수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농심은 ‘신라면’에 이어 백산수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백두산에 공장을 증설해 백산수 생산 규모를 연간 25만 톤에서 125만 톤으로 대폭 늘렸다.

농심 관계자는 “올 하반기 이세돌을 모델로 내세워 마케팅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두 자릿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고 단독 2위 자리를 확고히 해 올해 8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생수를 생산하고 있는 백학음료의 지분을 가진 롯데칠성음료도 지난 2014년 대규모 생산시설 확충에 나선 뒤 생수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단일 생수 브랜드로는 백산수에 밀려 3위로 내려앉은 ‘아이스스 8.0’과 ‘아이스스’의 점유율을 합하면 올 1분기 점유율이 7.8%로 농심을 앞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꽃보다할배’, ‘태양의후예’ 등에 PPL(간접광고)을 진행하고 수원지를 강조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 생수브랜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lsa@



올해 1분기 생수시장 점유율 (단위: %)

\* 기타: 35.3% \* 출처: 날스코리아



## 생수 1위 보증수표 ‘삼다수’ 판권 잡아라

“제주 삼다수를 잡아라!”

생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생수 관련 업체들이 올해 7000억 원대 규모로 전망되는 국내 생수시장의 45.7%(올해 1분기 기준) 점유율을 보이며 절대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주 삼다수 판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생수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 삼다수의 판권 확보는 곧 생수업계 1위 업체로 부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다수를 생산, 관리하는 제주자치도개발공사는 1개 위탁판매 업체를 선정해 생수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인데, 올 연말 광동제약과의 4년 판권계약이 종료돼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판권계약을 갖고 있는 광동제약부터 CJ제일제당, 농심, 이마트 등 많은 기업들이 삼다수 판권 인수전에 뛰어든 전망이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5723억 원 가운데 삼다수 비중이

광동제약 작년 매출 5723억 중 30% 차지  
올해 연말 4년 계약 종료에 사업자 재선정  
광동 “판권 사수”... CJ·농심·이마트 도전

약 30%인 1676억 원을 차지할 정도로 재계약을 통해 판권을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광동제약 측은 “삼다수 판권 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매출 확대 및 제주도에 대한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CJ제일제당 역시 삼다수 판권 인수전에 적극적이다. CJ는 지난해 8월 제주도와 ‘제주도의 관광·식품·물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해 탄산수 공장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CJ는 삼다수 판권까지 확보해 생수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판권을 확보해 오늘의 삼다수를 만들었던 농심 역시 판권 인수전에 다시 도전할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농심은 삼다수 판권 확보에 실패한 후 백두산 천지 물을 수원지로 한 ‘백산수’를 선보였지만 삼다수에 한참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이마트가 최근 연 매출 1억4000만 원 규모인 ‘제주소주’를 인수한 것은 제주 지하수 개발 허가권 취득을 통한 PB음료 개발과 삼다수 판권을 따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누굴 물로 보나”... 질병예방 효능 ‘기능성 생수’가 뜬다

## 물 오른 ‘프리미엄 생수’

급성장하는 생수 시장만큼 생수의 종류가 다양해진 가운데 프리미엄 생수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마시는 물’ 역시 까다롭게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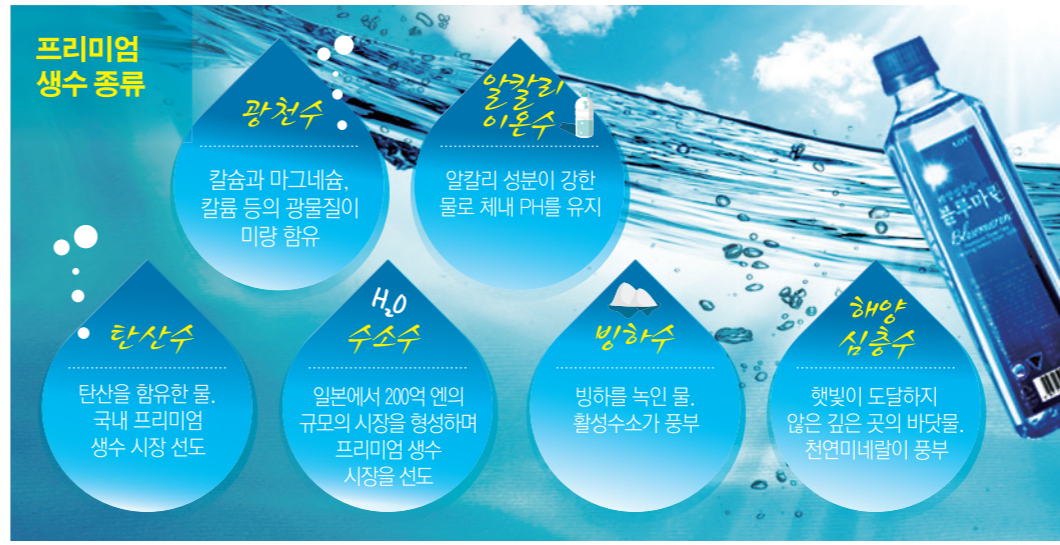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표한 가공식품소비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프리미엄 생수를 일반 생수보다 효능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한다’는 소비자의 응답 비율이 62.7%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생수업계 측은 “소비자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은 기본이고, 맛과 건강까지 고려하면서 한끼 식사보다 비싼 프리미엄 제품에 주저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에는 무기영양염류 및 천연미네랄이 풍부해 염증 아토피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해양심층수’, 약알칼리 성분을 지녀 항산화효과와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알칼리수’, 탄산을 넣은

미네랄 풍부 고혈압 개선 ‘해양심층수’ 당뇨엔 알칼리수... 불순물 ‘0’ 빙하수 일본서 히트 노화방지 ‘수소수’도 주목 밥보다 비싼 명품생수 소비자들 관심

‘탄산수’, 활성수소가 풍부해 불순물이 거의 없는 ‘빙하수’, 항산화작용으로 노화 방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수소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생수들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까지 프리미엄 생수 시장은 탄산수가 선두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산수 시장은 이미 80여개의 제품이 출시돼 있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800억 원, 올해는 1000억 원을 넘어 15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몸에 좋지 않은 탄산음료나 과즙음료의 대체품으로 부각되면서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해저 200m 아래의 깊은 바닷속에서 생산하는 정정수를 말한다. 인이나 질소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반면 지상의 유해물질이 적은 게 특징이다.

정부도 해양심층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심층수를 활용한 신제품 기술 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 예산에 올해 2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해양심층수로 만든 탄산수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히트상품인 수소수도 주목받고 있다. 수소수는 이미 일본에서 2014년 기준 200억 엔(약 206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해 생수 시장의 10%를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뒤늦게 수소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면서 수소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서 시판되는 수소수는 ‘애니닥터 수소수’와 ‘퓨 수소수’ 등 두 종류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수소수 생산은 걸음마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헬스케어 업체인 애니닥터 헬스케어가 지난해 시간 당 8톤의 수소수 음료를 생산할 수 있는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면서 수소수 시장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애니닥터헬스케어 관계자는 “최근 수소수의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서도 수소수를 찾는 소비자들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수소수는 효능이 뛰어난 만큼 탄산수에 이어 국내 프리미엄 생수시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isa@

## 탄산수 시장 지각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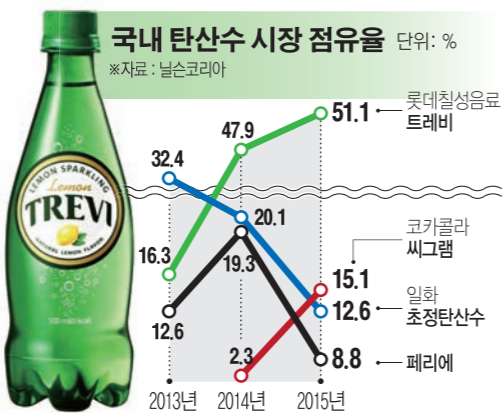
# ‘특 쏘는 맛’ 파이 커지네... 대기업들 속속 진출

올 국내시장 1500억 규모로 확대 점유율 51% 롯데칠성 ‘트레비’ 1위 코카콜라·일화... ‘3강 체제’ 구축 남양유업·풀무원·농심·CJ 도전장

지속적 성장세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생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탄산수’ 시장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CJ제일제당과 풀무원 등이 출시표를 던져 시장 재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5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탄산수 시장 규모는 2013년 143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 369억 원으로 2.5배 커졌고 지난해엔 8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5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탄산수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롯데칠성음료의 ‘트레비’가 51.1%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지켰으며, 코카콜라의 ‘씨그림’이 15.1%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일화의 ‘조정탄산수’가 12.6%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3강 체제를 형성



하고 있다.

탄산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업체들의 출시표도 잇따르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자사 첫 탄산수 ‘프라우’를 출시했으며, 올해 들어 동원F&B가 ‘미네마인 스파클링’, 농심이 ‘아텔홀썬 알앤퀵 스파클링워터’ 등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후발주자로 나섰다. 최근에는 풀무원이 ‘스파클링 아일랜드’를 선보이며 탄산수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CJ제일제당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조인트벤처(JVC) 형태의 합작사를 설립하고, 내년 초 제품

을 선보이겠다고 밝혀 업계를 긴장시켰다. CJ제일제당 측은 국내 식품유통업계 1위 기업인 만큼 자사가 갖고 있는 영업력과 마케팅을 활용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모색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측은 탄산수 제품 출시와 동시에 단숨에 상위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 일화 측도 대대적인 마케팅 강화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공격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국내 탄산수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코카콜라는 배우 차승원을 모델로 내세워 PPL(간접 광고) 등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일화는 세계 3대 광천수로 입지를 굳건히 할 방침이다. 나상훈 일화 경영기획팀장은 “조정탄산수는 미국 ‘샤스타’, 영국 ‘나폴리나스’와 함께 세계 ‘3대 광천수’로 인정받은 조정리 광천수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로 승부할 것”이라며 “조정탄산수만의 매력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배우 김유정을 모델로 내세워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isa@

## 생수, 해외진출도 활발

# “국내는 좁다”... 작년 900만 달러 수출

‘제주 삼다수’ 日 등 28개국에 판매 올 중동·유럽 시장으로 확대 계획 농심 백산수 중 공장에 2000억 투자

최근 생수 업계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국내 생수의 수출액이 상승하고 수출 국가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생수 수출액은 888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9%가량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45.7%의 점유율로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한 ‘제주 삼다수’의 위탁판매업체인 광동제약은 중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네시아 등 28개 나라에 삼다수를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중동과 유럽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 대비 약 57% 증가한 8000톤으로 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총 80개국에 10만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수출 기반을 정비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다. 중국의 생수시장 규모(2014년 기준)는 약 23조 원으로 같은 해 국내 시장규모(6000억 원)의 38배가 넘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또 기존 소규모 유통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수출 방식보다 현지 대형 유통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수출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조건별 수출 판매 가격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주요 국가별로 진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해외 교포와 한인 대상의 판매망을 현지 식품유통기업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농심 역시 ‘백산수’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2000억 원을 투자, 중국 이도백학 지역에 백산수 제2공장을 완공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가동 중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남아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월화수목검토일 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화수목검토일 치과에 예약했습니다.

**월화수목검토일 치과** | T.032-514-0028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부평동, 대한빌딩 7,8층)

**BIG BANG**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힘들고 어려웠던 아이언 4,5번 거리를 이제부터는 아이언 7,8번으로

# 쉬고, 포진하세요!!



누구나 한 두 번 실수를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실수 후에 만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누구나 가끔 드라이버를 잘못 칠 수 있지만 현명한 골퍼는 세컨샷 선택이 다릅니다  
돌이켜 보면 스코어는 여기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길게 남은 거리 - 롱아이언을 잡아야 할 시점에 40야드 더 나가는 뱅롱디스틴스 숏아이언을 잡으면 쉽고 편하게 투온이 되어 티샷 실수를 만회합니다.

반발계수 0.925  
40yd 더 나가는 **극초고반발**  
**하이브리드 아이언**  
**BIG BANG Longdistance**

**일반적인 아이언보다**

-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체적이 커서 스위트스팟이 넓고 빗맞아도 뒤틀리지 않는다.
- 출발 백스핀 1.12배, 착지 백스핀 3.5배 증가 - 백스핀이 너무 많아 그루브를 없앴다.
- 뒷땅이 없다.
- 엘보우가 없다.
- 스윙이 쉽고 편하다.
- 세계에서 제일 가볍다. (초경량, 스윙밸런스 B3까지도 가능)



대표전화 : 1544-807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래미 없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Made in Japan or Made in Korea -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리뷰

중가집 '우리중군 생나또'

### 한국인에 맞는 종균으로 콧속감 줄여

국산콩 100% 고소하고 단백질·웨이크·샐러드·덮밥 등 다양하게 활용

여름은 실내외 온도 차이가 높고, 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계절이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하루 세 끼 식사 때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여름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슈퍼푸드 나또는 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 장애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대표 건강식품으로, 중가집 '우리중군 생나또'의 경우 한국인에게 특화된 제품이라는 점이 인기요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100% 국산콩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종균을 관리한다는 부분도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실제 '우리중군 생나또'는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중군 생나또'는 직접 먹어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나또 특유의 향과 맛 때문에 나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먹기가 부담스럽지 않다. 한국인에게 맞는 종균을 적용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살려 나또 초보자들에게 제격이다. 또한 제품에 포함된 건강



과 저자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고 웨이크, 샐러드, 덮밥, 삼각김밥 등 다양한 요리와도 어울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연예인들의 레시피로도 유명한 나또 웨이크,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는 나또 김밥 등 요리 식재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중군 생나또'는 그동안 중가집이 전통발효 식품 연구에서 얻은 발효 노하우로 직접 개발한 종균을 넣어 만든 '한국형 나또'다. 기존에 일본 종균을 수입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나또 시장에서 중가집은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발효식품에서 종균을 채취해 한국인 체질에 맞게 설계된 나또를 선보였다. 이처럼 '우리중군 생나또'는 중가집만의 핵심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분리한 종균을 제품에 적용해 특허 출원한 제품이다.

대상FNF 중가집 관계자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개발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HOT 아이템

CJ라이온 '아이! 깨끗해 향균 폼 핸드숍'

### 여름철 유행 수족구, 올바른 손씻기부터

대장균·포도상구균 등 유해세균 99.9% 제거... 세정 잔여물은 0%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여름철은 더욱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간편하게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향균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손은 각종 유해 세균과의 접촉이 많은 부위로, 올바르게 씻는 것만으로 질병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생활용품 전문기업 CJ라이온의 '아이! 깨끗해 향균 폼 핸드숍'은 향균성분을 함유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포함한 유해세균을 99.9% 제거해주는 손 세정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 깨끗해 향균 폼 핸드숍'은 피부 테스트를 완료해 어른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피부가 연약한 아이들도 안심하



고 사용 가능하다. 또 용기의 펌프를 누르면 바로 거품이 나와 사용이 간편하고, 혼자 손 씻기 어려웠던 아이들도 마치 놀이를 하듯 재미있게 손 씻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세정 잔여물이 남지 않아보다 청결하고 산뜻한 사용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레몬, 청포도, 복숭아, 순 등 4가지 핸드숍과 주방용 핸드숍인 키친민트도 구성돼 취향과 필요에 따라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

CJ라이온 관계자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다양한 질병에 전염되기 쉽기 때문에 손 씻기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며 "'아이! 깨끗해 향균 폼 핸드숍'로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들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주목 신상품

헨켈홈케어코리아 '브레프 파워젤 식스 이펙트'

### 변기속 누런 찌든때 10분이면 말끔하게

안쪽 가장자리에 도포후 간단하게 솔질... 크리스탈 화이트닝 효과도

헨켈홈케어코리아의 변기 세정제 브랜드 브레프가 강력한 세정력으로 깨끗한 변기 청소를 도와주는 '브레프 파워젤 식스 이펙트'를 새롭게 출시했다. 브레프 파워젤 식스 이펙트는 6가지 강력 효과를 한 번에 담아 쉽게 오염되는 변기의 위생 관리와 청소를 도와주는 제품이다.

'도탈 프로텍션'과 '맥스 화이트' 2가지로 출시된 파워젤 식스 이펙트는 △코팅/화이트닝 효과 △99.9% 살균효과 △오염제거 △물때방지 △탈취·방향 △변기 물 아래 찌든 때까지 없애는 강력한 세정력을 한 번에 전달하며, 파인향 함유로 더욱 상쾌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

브레프 파워젤의 '도탈 프로텍션'은 찌든 때를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강력한 세정력과 오염 방지 코팅으로 깨끗함을 더욱 오래 유지해주며, '맥스 화이트'는 강력 세정 기능과 더불어 크리스탈 화



이트닝 효과로 늘 새것처럼 빛나는 변기를 만들어 줘 더욱 편리하게 위생적인 변기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제품은 변기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도포하고 10분 후 솔질만 해주면 된다. 또 제품이 새거나 아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어린이 보호 마개를 적용했다.

브레프 마케팅 담당자는 "브레프 파워젤은 코팅 효과로 청소 후 세척 같은 깨끗함을 오래 지속해주는 것이 특징이며, 제품 액상의 커버력과 도포력이 우수해 한 번에 넓은 면적을 청소할 수 있고, 우수한 밀착력으로 매끈하고 경사진 변기 벽면에 사용하기 최적화된 오염물에 오래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며 "힘들지 않아도 완벽한 청소와 살균 효과로 편리하게 깨끗한 변기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타보니

쌍용자동차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

## '4륜구동'으로 비포장길도 거침없이



급경사·90도 회전구간도 거뜨 6단 자동변속기로 주행감 좋아

차체와 프레임 볼트방식 연결 진동 최소화로 정숙한 승차감

국내 유일의 픽업트럭인 쌍용자동차의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가 도심형 SUV(다목적스포츠차량)로 거듭났다. 매시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색상이 변경된 스킵트 플레이트의 웅장함이 변화의 시작을 알린다. 측면 사이드 라인을 장식한 굵은 선들은 '스포티함과 날렵함'을 강조하며 여타 도심형 SUV들과 경쟁선상에 올라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여기에 픽업트럭의 고유한 성품인 야성미는 내면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프레임 바디로 새롭게 완성된 덕분에 일반도로에서는 정숙한 승차감을, 오프로드에서는 강력한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3중 구조의 초강성 프레임 차체가 디젤 엔진과 노면의 진동을 잡아 야성미의 픽업트럭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구조로 발전했다.

최근 경기도 정평 일대 일반 도로와 산악길 오프로드에서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를 타고 달려왔다. 이날 차량은 4륜구동 CX7 트림 최고급 '비전' 모델이다. 이 모델의 가장 큰 변화는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으로 엔진은 기존 2.0리터 엔진에서 2.2리터로 업사IZED했다. 변속기는 세계 최대 변속기 회사인 아이신의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다.

우선 일반도로 주행에서 첫 인상은 정숙성이

다. 스포츠 모델인 만큼 노면의 거친 성질이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던 예상을 뒤집었다. 3중 구조의 초강성 프레임이 '덜덜'거리는 소리와 투박한 픽업트럭의 단점을 완전히 잡았다. 단순히 엔진 소음만을 놓고 일반 디젤 SUV와 비교하면 전혀 뒤쳐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쌍용차 관계자는 "프레임 전반부 프런트 크로스바를 전체 프레임과 볼트 체결 방식으로 연결한 덕분에 정숙함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차체와 프레임이 하나로 되어 있는 모노코크 보디 기반의 차량에 비해 정숙성과 진동방지 효과가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단순히 정숙함만을 뽐낼 모델은 아니다. 산악길 오프로드 구간에서는 프레임 보디의 장점이 여지없이 발휘되면서 4륜 구동의 파워가 돌고 돌고 흡진을 거침없이 치고 나갔다. 경사가 높고 90도가 넘는 회전구간에서는 LET(Low-End Torque) 콘셉트로 개발된 1400~2800rpm의 강력한 힘을 체험할 수 있다.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는 유로6 배기가스 규제를 맞춘 e-XDi220 엔진이 최고출력 178마력, 최대토크 40.8kg·m의 힘을 냈다. 기존 엔진 대비 출력과 토크가 23마력, 4.1kg·m 향상됐다. 안철우 기자 acw@

안본 사람은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없는

이미 친세상  
우리가  
정신이다

M U S I C A L

루니틱

2016.04.01 ~ OPEN RUN

elplus+ 가든씨어터

공연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공연문의 elplus+ 02-6403-7117

# 대선 지지율 투톱 '반기문·문재인' 테마주 들쭉

〈코스모신소재〉 〈코이즈〉 〈우리들휴브레인〉

## 베스트&워스트 7월 18~22일

◇박근혜 레임덕 가속화... 반기문·문재인 테마주 강세 =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우리들휴브레인이다. 대표적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우리들휴브레인은 지난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1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율이 회복되자 27.74% 상승률을 그렸다.

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표를 반기문 UN사무총장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각각 0.9% 포인트, 0.4% 포인트 하락한 반 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 비해 0.5% 포인트 상승하면서 반 총장과 격차를 좁혀 기대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되

육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는 비상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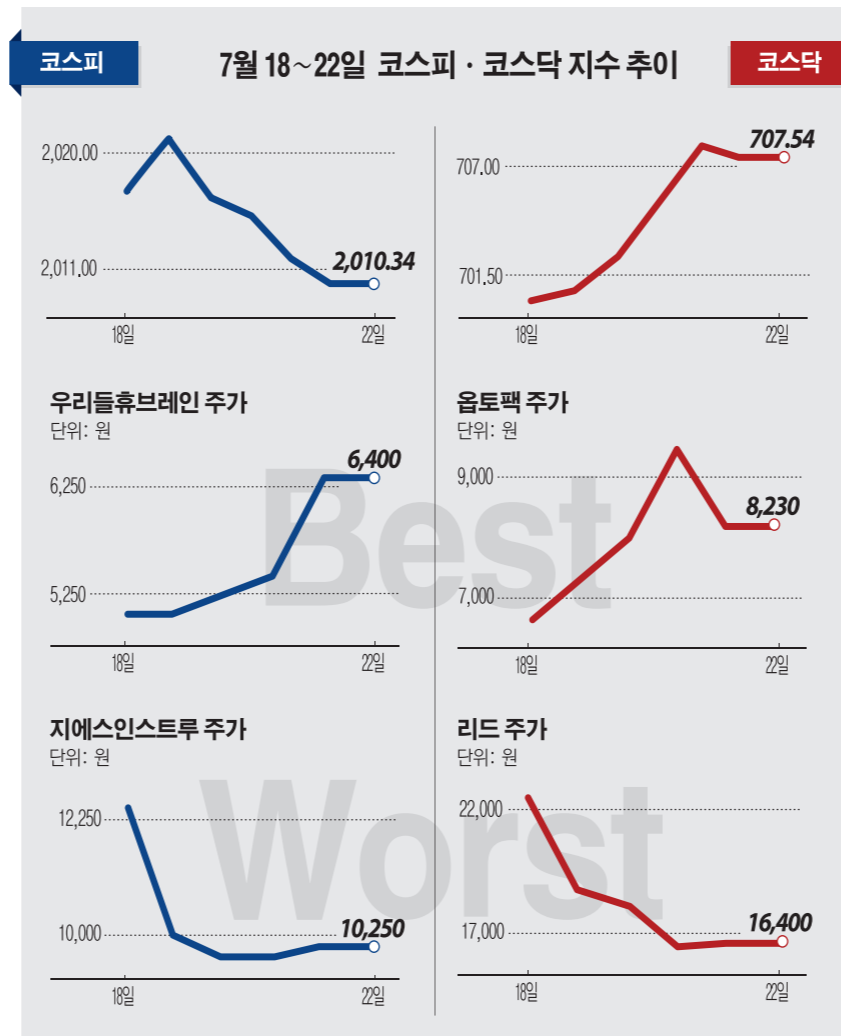
◇지에스인스트루, 과열 조짐에 결국 급락 =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서는 통신장비업체 지에스인스트루의 하락이 눈에 띄었다. 지난 19일에는 장중 9920원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등 주간 하락률이 22.35%에 달했다.

동사는 올해 상반기(1월 4일~6월 28일)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이다. 연초 187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1만3500원까지 치솟아 무려 621.9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에스인스트루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로 인해 지난주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급상승 상위 종목으로 선정된

7월 넷째 주(18~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6.92포인트(0.34%) 내린 2,010.34로 마감했다. 올해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52주 신고가 경신에 상승세를 뒷받침했지만,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조정 장세를 나타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8422억 원, 608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9008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주대비 7.26포인트(1.04%) 오른 707.54로 마감했다. 21일에는 708.12포인트를 기록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이번 주 내내 유가증권시장을 추월했다. 한국거래소 집계 결과, 외국인이 97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개인 투자자들도 1030억 원의 '사자세'를 보였다.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1475억 원을 팔아치웠다.



###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22일 시가 총액	7월 15일	7월 22일	주가등락률 (%)
우리들휴브레인	112.20	5.010	6.400	27.74
코스모신소재	76.29	4.255	5.090	19.62
엠케이트렌드	252.99	17.250	20.000	15.94
비상교육	185.85	12.350	14.300	15.79
메리츠증권	1,908.58	3.340	3.845	15.12
롯데정밀화학	926.22	31.200	35.900	15.06
코리아씨티	244.48	9.080	10.350	13.99
동아지질	119.03	9.110	10.350	13.61
에이앤씨	121.01	2.220	2.515	13.29
씨에스윈드	426.96	22.000	24.700	12.27

###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22일 시가 총액	7월 15일	7월 22일	주가등락률 (%)
아이콘트롤스	242.37	31.700	29.450	-7.10
고려포리머	45.54	1.370	1.270	-7.30
필룩스	115.41	4.930	4.560	-7.51
유엔젤	74.95	6.150	5.680	-7.64
알보테크코리아	415.03	38.500	35.000	-9.09
STX	74.70	2.800	2.500	-10.71
제일약품	1,020.20	77.700	68.700	-11.58
지코	34.64	1.430	1.250	-12.59
삼화왕관	100.72	54.800	46.750	-14.69
지에스인스트루	128.38	13.200	10.250	-22.35

※자료: 에프앤가이드

###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22일 시가 총액	7월 15일	7월 22일	주가등락률 (%)
업토팩	36.45	5.719	8.230	43.91
코이즈	82.54	6.090	8.510	39.74
루미다이크로	71.13	1.370	1.875	36.86
스틸물리위	67.06	1.180	1.590	34.75
대성파인텍	68.60	9.780	12.850	31.39
에이테크솔루션	61.10	4.680	6.110	30.56
제로투세븐	116.14	7.240	9.450	30.52
에일하이	135.75	4.415	5.620	27.29
인터플렉스	262.09	12.600	16.000	26.98
영신고속	42.48	5.340	6.750	26.40

###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22일 시가 총액	7월 15일	7월 22일	주가등락률 (%)
파세코	95.57	8.090	7.240	-10.51
형지&C	72.19	2.470	2.210	-10.53
바이로메드	1,785.42	139.800	124.800	-10.73
포티스	92.76	4.860	4.335	-10.80
삼영이앤씨	90.64	11.600	10.300	-11.21
에이모션	140.75	10.250	8.950	-12.68
보타바이오	116.84	4.870	4.195	-13.86
엘컴텍	239.74	3.430	2.900	-15.45
뉴프라이드	255.51	7.690	6.290	-18.21
리드	84.08	23.000	16.400	-28.70

※자료: 에프앤가이드

## 한세실업에 인수된 '엠케이트렌드' 실적 기대감 15%↑ 상반기 뜨거웠던 '지에스인스트루' 차익매물에 22%↓ STX重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그룹주' 동반하락

는 코스모신소재도 19.62%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 총장, 문 전 대표가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양쪽 테마주가 동시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섬유 및 의복업체 엠케이트렌드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 계약 체결 소식에 15.94% 상승한 2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봉제 의복을 제조하는 한세실업으로 지분 40%를 약 1200억 원에 인수했다. 여기에 엠케이트렌드의 올해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기되며 기대감이 높아졌다.

비상교육은 경기교육청이 2017학년도부터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사실상 폐지한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에 이어졌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야간자율학습을 대신해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도입할 방침이며 실제 입시에서도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형 학습이 강조되고 있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

제일약품(165.28%), 필룩스(106.25%) 역시 지난주 각각 11.58%, 7.51%의 주간 하락률을 보였다.

지난 22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STX중공업의 영향으로 한 주간 10.71% 급락한 STX도 시장의 관심을 끈다. STX중공업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STX와 STX엔진도 동반 급락했다. STX와 STX엔진은 출자 지분과 동일 브랜드로 STX중공업과 관계를 맺고 있다. STX는 22일 전일 대비 13.19% 하락한 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7월 셋째 주(11~15일) 25%의 주간 상승률을 그리며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인 유엔젤은 지난주 7.64% 하락하며 차익매물 발생의 영향을 받았다. 동사는 18일 장 초반 전일 대비 15.77% 오른 712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지만, 종가는 5610원으로 8.78% 급락했다.

최두선 기자 sun@

◇옵토팩, 코넥스 이전 상장에 43.91%↑ '강총' =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전주대비 43.91%의 상승률을 기록한 옵토팩이었다.

20일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상장돼 거래를 시작한 옵토팩은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29.95%)까지 오른 8070원에 장을 마감했다. 공모가 5900원 대비 상승폭은 36.78%이다. 거래대금은 864억 원으로 시가총액 357억 원 대비 2배를 넘어섰다.

최종경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NeoPAC"은 세계 2번째 CSP(Chip Scale Package) 방식 이미지센서 패키지 기술"이라며 "얇은 두께 경쟁력과 신뢰성, 품질,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 경쟁

마이크로는 20일 가격제한폭(30%)까지 오른 1820원에 장을 마감했고, 21일 장중 한때 2180원까지 주가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리드, 최대주주 변경·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급락 =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은 디스플레이 업체 리드다. 리드는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영향으로 한 주간 28.70% 하락했다.

리드는 지난 12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임종렬 외 2인에서 디지파이홀딩스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후 주가는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실상가상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리드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를 이유로 지난 2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옵토팩'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상승 1위 최대주주 변경 '리드' 불성실공시법인 예고 하락 1위 '뉴프라이드' 홍콩 자회사에 101억 대어 18% 떨어져

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일본의 소니(Sony), 중국 갤럭시코어(GalaxyCore), 삼성LSI,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에 연 1억 개 이상의 패키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최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 급등세를 보인 디스플레이 기업 코이즈는 지난주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돼 39.74%의 상승률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남녀 1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주중 집계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1.2% 포인트 앞선 1위를 기록하면서 '반기문 테마주'의 상승을 유도했다.

이에 성문전자는 22일 증가 7140원으로 한 주간 8.51% 상승했고, 일야는 7.64% 오른 9580원에 장을 마감했다.

LED관련 테마주가 급등하면서 루미마이크로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루미

에고했다.

자동차부품업체 뉴프라이드의 주가는 일주일 내내 하락세를 보이며 18.21% 감소했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글로벌 자산투자업체 SRV엔터프라이즈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지만, 18일 자회사 뉴프라이드 홍콩을 대상으로 101억5000만 원의 급전대여를 결정했다고 밝혀 하락 반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랙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에 따른 급증 상승의 수혜를 본 엘컴텍은 추가 차익실현 매물 발생에 전주대비 15.45% 내린 2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보타바이오는 지난달 27일 2건의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24일 지정예고 공시 후 5400원의 종가를 기록한 보타바이오는 13.86% 내린 4195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두선 기자 sun@

나를 다스리고 타인을 움직이는 침묵의 기술

말의 과잉시대, 침묵으로 말하라!

# 침묵의 기술



백마디 말보다 무거운 또 하나의 언어 '침묵'  
삶을 지키는 지혜와 절제의 언어, 침묵의 14가지 원칙

조제프 앙투안 투생 다누아르 지음  
성구수 옮김 | 아르테 | 값 15,000원

제대로 침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을 닫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입안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침묵을 허물지 말아야 할 인생의 모든 길목에서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은 깊은 숙고와 맑은 혜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바로 그렇기에 옛 현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말을 배우려면 인간에게 다가가기 하지만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를 깨치려면 신을 따라야 한다."

모두 발신자인 세상.블로그,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각자 미디어인 세계. 말과 글의 과잉시대에, 언제 침묵할지, 어떻게 침묵할지를 가르쳐주는 책, 『(조선일보)』

현대인들은 소통을 강요당하고 있다.강박적으로 말과 글을 쏟아낼 것을 요구받고 설화과 필화가 난무한다. 이 책이 전하는 가치는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이다. 『(매일경제)』

문의: 031-955-2100

작가 장정일이 43인의 독讀선생을 모시고 선사하는 서평 문학의 진수

# 장정일, 작가

43인의 나를 만나다



장정일 지음 | 332쪽  
한빛비즈 | 값 15,000원

"화제 작가는 NO, 나는 문제의 작가를 찾는다"  
생태경제학자 우석훈, 만화가 최규석, 사진작가 노순택...  
장정일의 남다른 시선으로 만난 마흔세 명의 작가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작가들이 있다. 답고 싶다는 바람을 넘어 이렇게 맛깔나게 텍스트를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욕망을 품게 만드는 이들도 있다. 작가가자 서평가, 장정일이 그런 애서기들의 로망을 실현했다. "진짜 독서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눈을 길러주는 일"이라며 '자신의 기준'으로 선정한 43인의 작가들을 만나 텍스트 너머에 실존하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파헤쳤다.

문의: 02-2128-8773



# 수년째 내홍 겪던 큐브엔터... 흥승성 결국 떠난다

〈설립자·회장〉



홍승성 큐브엔터 회장

**IHQ 자회사 편입·상장이후 박충민 대표이사 체제로 변화  
최근 흥 회장 측근 자회사 발령에 반발 경영권 분쟁 격화  
이사회 사퇴 결정 이전부터 이미 10만주 장내매도하기도**

코스닥 상장사 큐브엔터의 설립자였던 흥승성 회장이 전격사임을 결정하면서 사내 경영권 분쟁이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흥 회장 사퇴의 공식적인 사유는 이사회 결의이지만, 경영진의 내부갈등은 훨씬 이전부터 진행돼 온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큐브엔터 측은 지난 21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흥 회장의 사퇴를 결정했다. 별다른 이견 없이 이사회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흥 회장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고백하면서 사임을 알렸다.

그의 갑작스런 사퇴는 최근 사내에서 불거진 경영권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내홍의 발단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정기 이사회에서 승인된 박충민 대표이사회의 조직 개편안이었다. 여기에는 흥 회장의 측근 인사들이 자회사로 발령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흥 회장의 반발이 이어졌다.

경영진의 대립에 소속 아티스트 현아의 솔로 활동과 신인 아이돌 그룹 펜타곤의 데뷔가 늦어지기도 했다. 이에 큐브엔터 최대주주 IHQ는 7월 초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흥 회장 등 내부 경영권에 대한 안전을 상정했다. 이어 21일 진행된 정기 이사회에서 흥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사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흥 회장은 지난 2008년 큐브엔터를 설립

하고 비스트, 포미닛, 비투비 등 유명 아티스트를 발굴한 장본인이다. 그는 큐브엔터의 상장 이전까지 매니지먼트와 투자, 인사 등 모든 사업을 총괄했다.

하지만 IHQ의 최대주주 등극과 코스닥 상장으로 경영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큐브엔터는 지난 2013년 9월, IHQ와 투자 제휴를 맺고 지분 50.01%를 165억 원에 넘겨주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또 2015년 4월 9일, 우리기업인수목적2호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박충민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다.

최대주주 IHQ는 큐브엔터의 경영을 이사회 중심으로 이끌어갔고, 흥 회장은 사내이사로 등록됐다. 당시 흥 회장은 15.59%의 지분율로 큐브엔터의 2대주주가 됐다.

큐브엔터는 상장 이후 실적 부진에 시달렸다. 2015년 매출액 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7억 원으로 53.3% 감소했다. 당기순손실 역시

2015년 57억 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동시에 큐브엔터의 매출을 책임진 그룹 비스트의 멤버 장현승이 지난 4월 팀을 탈퇴했고, 포미닛은 7년 만에 해체를 발표하면서 공중 분해됐다. 이에 실적 부진에 따른 소속 아티스트의 외해가 경영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흥 회장의 사퇴가 미리 결정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큐브엔터는 지난 15일 흥 회장이 보유주식 10만 주(0.38%)를 주당 2506 원에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흥 회장의 지분은 399만286주(15.02%)에서 389만286주(14.64%)로 감소했다.

흥 회장은 사퇴 결정 이후 "분신과도 같았던 인생 전부를 걸었던 큐브라는 곳을 떠나게 됐다"며 "큐브라는 울타리의 문제점들을 끝내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남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큐브를 사랑해주시는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 레드로버, 中쑤닝예술관에 영상콘텐츠

상하이 위치 고미술품 전시공간 미디어 아트·특수영상 기법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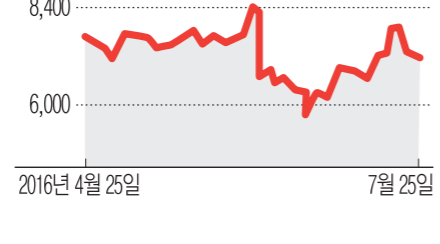
레드로버는 22일 '쑤닝 예술관' 첨단 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 전역 국제광장에 있는 '쑤닝 예술관'은 쑤닝 그룹의 고미술 소장품 전시 공간으로 레드로버는 이 공간의 홍보를 위해 첨단 미디어 아트와 특수영상 기법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한다. 레드로버는 지난해 12월 중국 상하이 합자법인 '상하이홍만유한과학기술공사'를 설립연료하고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4D 콘텐츠 및 하드웨어 시스템, 첨단 특수영상 등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첨단 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시작으로 중국에서의 콘텐츠 사업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레드로버는 중국의 전통문화가 담긴 예술품들에 디지털 기법을 적용, 작품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관람객들이 작품과 직접 쌍방향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레드로버는 글로벌 수준의 3D 에

레드로버 주가 추이

(단위: 원)



니메이션 기술과 영화 시각특수효과(CG·VFX)를 적용한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미 '2012년 고성공룡엑스포', '2013년 대장경테마파크', '2014년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 정부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에 수행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레드로버 관계자는 "첨단영상 콘텐츠는 제작기간이 짧아 여러 작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가능해 단기간에 매출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VR콘텐츠, 360° 파노라마 영상, 4D 다면 영상 등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추고,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시중 기자 ssi@

## 공시돌보기

### 휴리스, 새 최대주주 '경영권 분쟁'에 불똥

휴리스가 최대주주인 제이엔케이 인베스트먼트의 내홍으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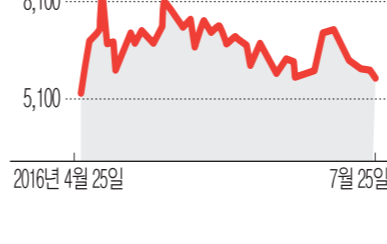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리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화공시 요구에 "최대주주인 제이엔케이에서 소유주 160만 주 가운데 100만 주에 대해 유모 씨 외 5인과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했음을 확인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최근일 기준의 주주명부에 의거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이엔케이는 지난달 30일 전 최대주주인 인터림스코리아로부터 160만 주를 넘겨받으면서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문제는 제이엔케이가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이엔케이의 최대주주 한상엽 씨와 김보형 대표 측이 갈등을 겪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제이엔케이가 총 인수자금이 80억 원 중 잔금 64억 원이 부족해 세종저축은행과 한상엽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애초 한상엽 씨는 16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세종저축은행에 대출한 35억 원에 대해 연대

지난달 제이엔케이 160만주 취득  
인수자금 조달과정서 내부 갈등  
투자금 상환에도 연대보증 불씨  
향후 민·형사 소송까지 이어질듯

휴리스 주가 추이

(단위: 원)



보증을 썼다. 한상엽 씨는 이를 통해 제이엔케이 지분 50%(1만 주)를 확보하고, 휴리스에 대해 공동경영에 나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협약서에는 협약체결 15일 이내 한상엽 씨에게 빌린 투자금을 상환하고 연대보증을 해소하면 한상엽 씨의 권리를 모두 소멸하겠다고 약속했다. 15일 후인 지난 14일 한상엽 씨는 투자금 16억 원을 모두 돌려

받았지만 세종저축은행의 연대보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상엽 씨는 공동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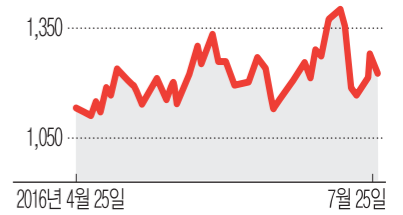
그러자 김보형 대표 외 1명은 세종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로 제공한 휴리스 주식 100만 주를 출고해 갔다. 휴리스가 제이엔케이 측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100만 주가 지난 14일과 15일 주식담보계약으로 제공됐고, 이 가운데 20만 주(1.08%)를 20일과 21일에 임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이엔케이의 휴리스 지분율은 8.67%에서 7.59%로 변경됐다.

휴리스 측은 "제이엔케이의 주식담보 대출 계약 체결에 따라 담보제공된 주식 100만 주 중 담보권자 1인이 20만 주를 임의로 처분했음을 확인했다"며 "채공된 담보권 주식 중 남은 80만 주는 담보권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최대주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상엽 씨는 김보형 대표 측에 대해 권리 침해해 이유로 민·형사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성 기자 tskwon@

고려포리머 주가 추이

(단위: 원)



고려포리머 50억 전환사채  
기관투자자 2곳 전망 인수

고려포리머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 전망을 기관투자자가 인수한다. 이 회사가 주력하는 유연탄 트레이딩 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포리머는 25일 발행하는 5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39억 원, 현대자산운용이 11억 원의 CB를 각각 인수한다.

이번에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전액 유연탄 트레이딩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력 사업으로 진행 중인 유연탄 트레이딩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관이 CB 전망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번 전환사채는 표면금리 0.0%, 만기이자율 2.0%로 발행 조건도 좋은 편이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210원으로 결정됐다.

이 회사는 지난달 17일 한국남부발전이 30억 원 규모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8월 중 납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한국서부발전이 548억 원 규모 유연탄을 5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에만 191억 원어치 유연탄을 공급했다"며 "한국서부발전이 이어 한국남부발전에도 유연탄을 공급하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다.

고려포리머는 수년 전부터 자원 관련 사업 진출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준비 단계를 거쳤다. 2008년도에는 투자했던 회사를 통해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유연탄 6만여 톤을 한국남부발전이 공급했다. 자원 개발 사업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적실히 쌓아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남궁건 고려포리머 회장은 "사할린에서 쌓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자원개발과 유통에 대해 쌓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고려포리머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아스트, 보잉에 항공기 부품 첫 공급

벌크헤드·프레임·패널 등 총 14종 '신규품목 확대·발굴'·성장 기대

항공기 정밀구조물 제작 업체 아스트는 보잉 747형 벌크헤드와 패널 1호기에 대한 출하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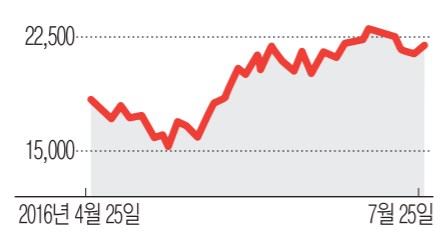
아스트는 지난해 10월 트라이엄프 보트(Triumph Vought)와 보잉 747-8 벌크헤드와 패널 등 14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이 계약에 대한 첫 번째 아이템 출하에 따른 기념식으로, 아스트 김희원 대표이사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월 납품한 버티칼 스킨이 이어, 벌크헤드를 비롯해 프레임과 패널 등 총 14종의 품목에 대한 조도품을 납품하게 됐다"며 "현재 B747형 스트링거, 스킨, 프레임, 벌크헤드, 패널 등 동체 핵심 구조물을 순조롭게 개발·공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납품은 항공기 구조물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섹션 48의 구성품인 벌크헤드 제작기술과 이중 컨투어

아스트 주가 추이

(단위: 원)



어링(double contour) 스킨 제작 기술을 집대성한 패키지 형태로, 고객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벌크헤드는 항공기 동체의 강성 유지를 위해 외부의 유압을 막아주는 기체 격막 구조물이자, 동체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김희원 대표는 "보잉사의 단일 통로(Single isle) 대형항공기 및 초대형항공기(Large body)에 대한 핵심 구조물을 개발 공급한 레퍼런스를 통해, 다변화된 고객사 각각의 요구에 맞춘 신규 품목 발굴과 개발 속도 향상에 매진하겠다"며 "향후 품목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NHN엔터 오너가 '책임경영'...2세까지 지분매입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의 2세들이 주식을 장내매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준호 의장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지분 매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NHN엔터는 이준호 회장의 자녀인 수민·수린 남매가 각각 14만 주씩 총 28만 주를 장내매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두 남매의 NHN엔터 보유 지분율은 각각 2.02%, 1.85%가 됐다.

두 남매는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NHN엔터 주식을 매수해왔다. 5월부터 3개월간 매수한 주식을 모두 합치면 각각 약 40만 주, 36만 주에 달한다. 이날 종가인 6만9200주로 계산하면 총 525억9200만 원 규모다.

자녀가 주식을 사들이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이준호 회장 지분을 역시 증가했다. 이 회장이 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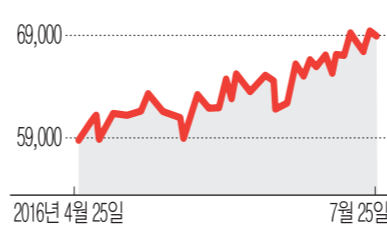
최근 두 남매, 28만주 장내매수  
특수관계인 지분 41.51% 달해

IT사업 다각화·게임부문 흑자

지배력 확대...주주들에 믿음

NHN엔터테인먼트 주가 추이

(단위: 원)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제이엘씨 등 29명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까지 모두 합치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41.51%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NHN엔터는 현재 모바일 게임 외에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와 웹툰 '코미코' 등을 통해 다양한 IT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게임 '프렌즈팝'이 흥행을 거두고 페이코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1분기 매출액 2036억 원, 영업이익 92억 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면서 주주들에게 경영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지분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NHN엔터의 2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NHN엔터는 2분기 매출액 2186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매출은 7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예상했다. 조성준 기자 tatio@

**현대자동차그룹 동행어 사전**  
동행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P880



# 활활활

[ The strong will to prove one's effort ]

【분】 ①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겠다는 의지의 상태

모두가 숨 죽이고 있는 과녁 앞에서  
선수들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불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준비해 온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내고 돌아올  
우리 선수들, 현대자동차그룹이 힘차게 응원합니다

{ **지난 30여 년 대한민국 양궁이 이루어 낸  
영광의 순간들과 함께한 현대자동차그룹** }



## 동행으로 미래를 펼치다

**HYUNDAI**  
MOTOR GROUP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철강, 건설을 중심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동행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